明淸 교체기 조선 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靑州府 夷齊廟의 문화공간 연구*

王珂** · 한종진*** · 당윤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明淸 교체기 海路使行路線 중의 靑州府 夷齊廟
3. 山東 靑州府 夷齊廟의 연혁과 변천
4. 조선 사신의 눈에 비친 山東 靑州府 夷齊廟
5. 나가는 말

【 국 문 초 록 】

명청 교체기에 해로사행길을 이용하여 명나라로 향했던 조선 사신들은 登州府, 萊州府를 거쳐 靑州府로 진입하는 사행 노정 중에 백이와 숙제의 사당인 夷齊廟를 지났고 이에 대한 기록과 詩作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명청 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노선을 기록한 연행록 가운데서 청주부 이제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중국 지방지의 텍스트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청주부 이제묘의 공간의 변천과 현재의 모습 등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신의 시편 속에 그려진 청주부 이제묘의 문화 공간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유현 - 창락현을 지났던 조선 사신들은 창락현 동쪽 10리 거리에 있는 孤山 위에 “夷齊廟” 사당이 있음을 보았다. 청주부 창락현의 이제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진, 한대 이래로 명대와 청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재했으며 여러 차례의 수리와 중건을 거치면서 유지되었다. 현재 이제묘는 2017-2018년 중수를 거친 후 “昭賢廟”라고 불리고 있다. 조선 사신들이 해로사행길의 산동 지역 육로에서 만난 청주부 이제묘는 조선 사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 소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0-INC-2250002).
** 제1저자. 中國 濰坊學院 韓語系 副教授
*** 공동저자. 中國 濰坊學院 韓語系 副教授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DOI: https://doi.org/10.21192/scll.110..202202.005

www.kci.go.kr

양,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들과 조응하면서 조선 사신들의 정신세계를 심화하는 문화 공간을 형성하였다.

주제어 : 조선 사신, 백이(伯夷), 숙제(叔齊), 이제묘(夷齊廟), 청주부(靑州府), 유현(濰縣), 창락현(昌樂縣), 고산(孤山)

1. 들어가는 말

明淸 교체기 조선 사신의 對明 海路使行은[1] 登州 노선과 覺華島 노선 2가지 경로가 있었다. 각화도 노선은 대부분 육로를 거치지 않고 해상으로 북경 인근 寧遠衛까지 배를 이용하여 항해하는 노선이었던 반면, 登州 노선은 유가문화의 본산인 옛 齊나라와 魯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山東 지역과 역대로 중국 역사의 상징적 사건들이 일어난 河南省과 北京 인근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조선 사신들이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있다.[2] 조선 사신들이 명나라로 향하는 사행길에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학습한 유교 문화의 유적지를 직접 목도하고 남아있는 유풍을 살펴보는 일은 신선하고도 감동적인 체험이 되었고, 고달픈 사행길에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여겨졌다.

명청 교체기의 조선 사신들이 해로사행길 중에 만난 여러 유적 가운데 "夷齊廟"가 있었다. 夷齊廟란 중국 고대 孤竹國의 왕자였으나 殷 紂王의 폭정을 피해 北海로 피하였고, 후에 周나라를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며 굶어죽은 것으로 잘 알려진 伯夷와[3] 叔齊를 기리는 사당을 가리킨다. 공자는《논어》에서 백이와 숙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

1) 1621년 3월, 後金이 심양과 요양을 탈취하고 요동 반도 전역을 차지하여 육로가 차단되자, 明으로 향하는 조선 사신들은 배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하게 되었다. 조선 사신의 '海路使行', 즉 조선 사신이 바다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향하였던 사행은 1621년부터 1636년(明末 天啓, 崇禎 연간)까지 15년간 유지되었다. 선행연구는 졸저,《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로의 노선과 지명 재구 및 인문지리학적 고찰. 1: 산동 등주부》, (서울: 역락, 2020),《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로의 노선과 지명 재구 및 인문지리학적 고찰. 2: 산동 래주부》, (서울: 역락, 2021) 참조.

2) 이 구간의 역참로와 지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된 연행록 문헌으로, 1621년 조선의 辯誣謝恩兼冬至聖節使의 書狀官이었던 安瑥의《駕海朝天錄》, 1623년 奏請使의 부사 尹暄의《白沙公航海路程日記》, 서장관 李民宬의《癸亥朝天錄》, 1623년 7월, 冬至聖節兼謝恩使의 정사 趙濈의《燕行錄》, 1624년 謝恩兼奏請使의 정사인 李德泂의《朝天錄(一云航海錄)》, 서장관 洪翼漢의《花浦朝天航海錄)》, 1624년 冬至使의 서장관이었던 金德承의《天槎大觀》, 1625년 聖節使였던 全湜의《沙西航海朝天日錄》, 1626년 謝恩兼進賀使의 정사인 金尙憲의《朝天錄》, 1628년 冬至聖節謝恩使의 서장관 申悅道의《朝天時聞見事件啓》, 그리고 1630년 鄭斗源이 기록한《朝天記地圖》등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3)《사기》권 61.〈伯夷列傳〉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伯夷와 叔齊는 孤竹國君의 두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숙제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다.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백이에게 양보하였으나, 백이는 "아버지의 명령이었다."라고 말하고는 달아나버렸다. 숙제 역시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고죽국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 무렵 백이와 숙제는 西伯 昌(周 文王)이 노인을 잘 모신다는 말을 듣고

www.kci.go.kr

급하면서 “古之賢人”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맹자 역시 백이와 숙제를 성인, 현자, 백세의 스승 등으로 칭송하였고, 특히 백이에 대해서는 성인 중의 맑은 사람[聖之淸者]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물론 이는 孔子(聖之時者)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백이를 “聖人”으로 자리매김한 것이고, 여기서 받은 맑다는 평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수없이 되풀이된다. 이러한 공자와 맹자의 평가 덕분에, 공맹의 말이 곧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유교문화권에서 백이와 숙제는 문인들에게 절의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그들의 삶은 보통사람들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성인, 현인의 것으로서,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칭송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이, 숙제는 유교문화권에서 절의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후대의 문인학자들에게 읽히고 강조되어왔다.[4] 그들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여 칭송하는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받기도 하였다. 특히 왕조의 교체기나 정변과 같은 권력의 이동기 또는 국난이 있을 때, 백이와 숙제는 자주 인용되어 한편에서는 칭송받고 또 다른 편에서는 비판받았다.[5]

명대와 청대에 조선 사신들이 燕京을 왕래하는 길로 자주 사용하였던 육로사행노선은 늘 永平府를 경유하였고 그 곳에 있는 夷齊廟를 거쳐 갔다. 그러므로 조선 사신들의 연행록에서 永平府 夷齊廟의 지리적 공간을 상세하게 묘사한 글이 적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도 발표되었다.[6] 그런데 명청 교체기에 登州 노선의 해로사행길을 이용하여 燕京으로 향했던 조선 사신들도 登州府, 萊州府를 거쳐 靑州府로 진입하는 사행 노정 중에 夷齊廟를 지났고 이에 대한 기록과 詩作을 남겼다. 그렇다면 조선 사신의 눈에 비친 靑州府의 夷齊廟는 어떠한

는 가서 의지하려 했다. 도착해보니 서백은 죽고 (아들) 武王이 나무로 만든 신주를 싣고 (서백을) 文王으로 추존한 다음 동쪽을 향하여 殷나라 紂王을 정벌하려 하고 있었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붙잡고 막아서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 장례도 치르지 않고 창칼을 들다니 孝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로서 군주를 죽이려는 것을 仁이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좌우에서 이들을 죽이려 하자, 강태공이 “의로운 분들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모시게 했다. 주 무왕이 은나라의 난리를 평정하고 천하가 주나라를 받들었지만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首陽山에 숨어 고비를 따서 먹었다. 굶어 죽기에 앞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저 西山에 올라 그 고비를 뜯는다.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神農, 禹, 夏는 이미 사라졌으니 우리는 어디로 귀의할까? 아! 탄식하며 나아가니 명이 이미 쇠하였도다!’ 두 사람은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4) 강혜정, 〈백이 숙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5-6쪽.

5) 김민호, 〈계보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백이, 숙제 고사 연구〉, 54쪽. “백이・숙제라는 코드는 이 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정권의 안정과 충성을 추구하는 쪽에서는 충의와 절개를 강조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비칠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되며, 또 백이와 숙제로 상징되는 위선과 가식을 철저하게 조롱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6) 선행 연구로 이성형, 〈燕行錄의 伯夷・叔齊 관련 漢詩 硏究-壬亂收拾期를 中心으로〉(《漢文學論集》 31집, 2010), 강혜정, 〈백이 숙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2010), 이현식, 〈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백이 이미지 연구〉(《東方學志》 123집), 이홍식, 〈조선후기 백이 수용의 한 양상〉(《한국고전연구》 23집), 王元周, 〈夷齊論과 조선조 후기 정치〉(復旦大學 韓國學硏究中心主編 《한국연구논총》 25집, 2013), 金哲・秦亞偉, 〈조선조 문인의 백이・숙제 수용과 인식 연구—연행록 중의 백이・숙제 기록을 중심으로〉(《當代韓國》 2014년 제3기), 楊雨蕾, 〈明淸 시기 永平府 夷齊廟의 변천과 조선 사신의 ‘백이・숙제 고사’에 대한 인식〉(《한국학논집》 77집, 2019) 등이 있다.

www.kci.go.kr

모습이었을까. 본고에서는 명청 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노선을 기록한 연행록 가운데서 청주부 이제묘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보고, 중국 지방지의 텍스트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청주부 이제묘의 공간의 변천과 함께 현재의 모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 사신의 시편 속에 그려진 청주부 이제묘의 문화 공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明淸 교체기 海路使行路線 중의 靑州府 夷齊廟

1624년 冬至使로서 해로사행노선을 따라 연경으로 갔던 金德承은 〈前後航海路程〉을 기록하였는데, 登州府에서 萊州府를 거쳐 靑州府에 이르는 산동 지역의 官道는 다음과 같았다.

> 등주(登州)로부터 황현(黃縣)까지 60리, 황산역(黃山驛)까지 60리, 주교역(朱橋驛)까지 60리 래주부성(萊州府(城))까지 60리, 회부역(灰阜驛)까지 70리, 창읍현(昌邑縣)까지 80리, 유현(濰縣)까지 80리, 창락현(昌樂縣)까지 50리, 청주부(靑州府)까지 70리이다.[7]

조선 사신들은 登州府 蓬萊縣을 출발한 후, 黃縣, 黃山驛, 朱橋驛, 萊州府 掖縣, 灰阜驛, 昌邑縣, 濰縣을 거쳐 靑州府 昌樂縣 동쪽 경계로 진입했다. 래주부 유현을 떠나 청주부 창락현까지 가는 50리의 여정 중에 조선 사신들은 청주부 창락현에 근접한 곳에서 夷齊廟와 관련된 유적을 확인하였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남겼다.

청주부 이제묘에 관한 기록은 1623년 5월, 주청사신단의 연행록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1623년 奏請使의 정사 李慶全, 부사 尹暄, 서장관 李民宬은 반정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仁祖의 책봉을 주청하기 위해 명나라로 향하는 사행길에 올랐다. 사신단의 서장관이었던 이민성이 편찬한《癸亥朝天錄》의 북경행 노정에는 이제묘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그러나 1624년 귀국 노정에서는 백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 (3月) 16日, 庚午에 "王老店"에 도착하였다. 아침에 창락현을 출발하여 "仙山古迹"(현 동쪽 10리에 있다), "伯夷故蹤"과 "逢萌故里"[8](현 동쪽 15리에 있다), "王裒故閭"[9](周流店에 있다), 그리고 "平津別業"[10](濰縣 서쪽 10리)을 지났다. 濰水를 건너 濰縣의 北館馹에 도착했다.

7) (朝鮮) 金德承, 〈前後航海路程〉, "自登州至黃縣六十里, 黃山驛六十里, 朱橋驛六十里, 萊州府六十里, 灰阜驛七十里, 昌邑縣八十里, 濰縣八十里, 昌樂縣五十里, 靑州府七十里."《연행록속집》106책, 117쪽.

8) 逢萌故里는 逢萌이 살던 옛 마을이다. 방맹은 漢나라 때 사람으로서 王莽이 한 나라를 찬탈하자 가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요동으로 옮겨 갔다.

9) 王裒故閭, 王裒古里는 왕부가 살던 옛 마을이다. 왕부는 晉나라 때 효자이다. 아버지 王儀가 司馬昭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자, 평생 서쪽으로 향해 앉지 않고 晉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시경》을 읽다가 〈蓼莪篇〉에 이르면 눈물이 비 오듯 하였으니 그의 문인들이 〈육아편〉을 덮고 읽지 않았다 한다.

www.kci.go.kr

……“王老店”에 도착했다.(이곳은 昌邑 지역이다). 약 백십리 길을 걸었다.

(三月)十六日, 庚午, 到王老店. 早發昌樂, 過仙山古迹(縣東十里), 伯夷故蹤、逢萌故里(縣東十五里), 王裒故閭(在周流店), 平津別業(濰縣西十里), 渡濰水抵濰縣之北館馹. ……抵王老店(昌邑地), 約行一百一十里.[11]

1623년 주청사 일행의 부사 윤훤은 서장관 이민성과 같은 여정을 가면서 《白沙公航海路程日記》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에는 북경행 노정이 누락되었지만 귀국 노정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윤훤 역시 귀국하는 길에 1624년 3월 16일 창락현을 지나면서 보았던 풍경을 서술하였다.

(3월) 16일, 맑음. 아침에 昌樂縣 東門을 나왔다. “安仁舊治”라는 네 글자의 패방이 있다. 동쪽 5리 지역에는 “仙人石跡”이 있다. 또 길의 왼쪽에 “伯夷待淸處”라는 다섯 자가 쓰여진 石牌가 있다. 또 동쪽으로 가면 “夷齊祠”의 石碑가 있는데, 사당은 孤山의 위에 있다. 또 동쪽으로 “逢萌故里”가 있고 다시 동쪽 20리 지역에 “王裒古里”의 패방이 있다. 유현에 가까워지면 서쪽 25리 지역에 大濰河가 있는데, “囊沙上流”라고 제액되었다. (후략)

(三月)十六日, 晴. 朝, 出昌樂東門, 有安仁舊治四字牌坊, 東五里有仙人石跡, 又路左有伯夷待淸處五字石牌, 又東有夷齊祠石碑, 祠在孤山上. 又東有逢萌里, 又東卄里有王裒古里牌坊. 近濰縣西二十五里有大濰河, 題曰囊沙上流(후략).[12]

이민성은 백이, 숙제와 관련된 유적으로 “伯夷故蹤”이 있으며 창락현 동쪽 15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윤훤은 창락현 동쪽 5리길 왼 쪽에 “伯夷待淸處”의 石碑가 있다고 했으며, “夷齊祠”의 石碑가 있는데 이제사의 사당은 孤山 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훤은 이제사 석비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1624년 謝恩兼奏請使臣 일행은 정사 李德泂, 부사 吳翻, 서장관 洪翼漢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정사 이덕형이 편찬한 《朝天錄》과 서장관 홍익한이 편찬한 《花浦朝天航海錄》에 기록된 유현 - 창락현 구간의 북경행 노정과 귀국 노정이 같으므로 서로 참조하여 볼 수 있다. 아래는 이덕형의 《조천록》의 기록과 홍익한의 《화포조천항해록》에 기록된 유현과 창락현 사이의 북경행 노정과 귀국 노정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9월) 19일 庚午. 창락현에서 유숙하였다. 지나는 길에 “夷齊舊隱處”가 있었고 (백이와 숙제의)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고 있었다. “平津別業”과 “王裒故里”, “逢萌舊墟” 등 유적이 있고,

10) 平津別業은 平津侯 公孫弘의 별장을 가리킨다. 漢武帝 때 정승이었던 공손홍은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명 이불을 덮고 현미밥[脫粟]을 먹었는데, 겉으로는 검소하고 근신하는 듯했으나 실은 간사한 소인이었다.

11) (朝鮮) 李民宬,《敬亭先生續集》권3,《癸亥朝天錄》歸程.《한국문집총간》전자판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298A_0200_010_0020

12) (朝鮮) 尹暄《白沙公航海路程日記》,《연행록전집》15책, 377쪽.

www.kci.go.kr

“石上仙跡”이 또한 완연하게 보였다.(이 날 오십리를 갔다.)

(九月)十九日庚午, 宿昌樂縣. 所過有夷齊舊隱處, 立廟祀之, 又有平津別業, 王裒故里, 逢萌舊墟等遺蹟. 石上仙跡, 又宛然可見.(是日行五十里)[13]

(9월) 19일, 庚午, 맑음. (濰縣北館에서 출발하여) “平津別業”을 지났다. 평진후는 무명 이불을 덮고 현미밥을 먹었으니 참으로 어진 사람이었던가? “王裒古里”에서 점심을 먹으니 그가 《시경》의 육아장(蓼莪章)을 차마 읽지 못하고 눈물 흘린 일이 상상되었다. “逢萌舊墟”를 지나니 방맹은 바다에 떠서 어디로 갔는고? “淸聖遺蹤”을[14] 지나며 생각하였다.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하고는 殷의 紂王을 피하여 숨어 있다가 周文王이 죽고 周武王이 은나라를 공격하매 말 머리를 두드리며 간언하였으니, 한결같은 절개는 千秋에 늠름하다. 孤山은 말이 없고 향의 불은 차갑게 식었으니 슬픈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날은 50리를 가서 昌樂縣 南關에서 유숙하였다.

(九月)十九日, 庚午, 晴. (從濰縣北館發行)過平津別業, 布被脫粟, 眞賢耶. 中火王裒古里. 想見其廢詩涕泣. 而逢萌舊墟, 浮海何之 ; 淸聖遺蹤, 蓋歸乎來, 避紂當時, 於焉豹隱而養老, 君亡, 觀政斯急則叩馬, 一節千載凜凜 ; 孤山無語, 香火淒涼, 不堪嗚呼. 是日行五十里, 宿昌樂縣南關裏.[15]

(3월) 9일. 丁巳. 맑음. 새벽에 詎米河를 건너 “營丘舊封”과[16] 堯溝의 “放勳橋”와 “方朔古壟”을 거쳐 昌樂縣 西關 劉守樂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安仁舊治”와 “伯夷待淸”과 “逢萌古里”를 지나 濰縣 北關 李梓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三月)初九日, 丁巳. 晴. 晨渡詎米河, 過營丘舊封, 堯溝, 放勳橋, 方朔古壟. 中火昌樂縣西關劉守樂家. 歷安仁舊治, 伯夷待淸, 逢萌古里. 宿濰縣北關李梓家.[17]

이덕형은 창락현 근처에 “夷齊舊隱處”, 즉 백이와 숙제가 옛적에 숨어서 은거하던 곳이 있으며 백이와 숙제를 기리는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홍익한은 북경행 중에 “淸聖遺蹤”을 지났고, 귀국길에는 “伯夷待淸”을 지났다고 하였다. 앞서 윤훤이 “伯夷待淸處”의 石碑가 있다고 하였으니, 홍익한이 보았던 것과 동일한 석비일 것이다.

1624년 冬至使臣團은 정사 權啓와 서장관 金德承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서장관 김덕승이 《天槎大觀》에서 창락현의 지리와 주요 지명을 설명한 것은 참조할 만하다.

13) (朝鮮) 李德泂, 조규익 역, 《17세기 국문사행록 죽천행록》, 330쪽.

14) 淸聖遺蹤의 “淸聖”은 청정한 聖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伯夷를 가리킨다. “청성”이란 말은 《孟子・萬章下》에 “伯夷는 성인 중에 청정한 자이다(伯夷, 聖之淸者也.)”라는 구절에서 나왔다.

15) (朝鮮)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卷之一, 한국문집총간 《연행록선집》 전자판 [DCI]ITKC_GO_1414A_0010_040_0190_2004_002_XML

16) 營丘舊封은 영구(營丘)의 옛터를 의미하는데, 주 무왕(周武王)이 강태공(姜太公), 즉 강상(姜尙)을 봉작한 곳이다. 강태공은 영구에 도읍을 두고 제(齊)나라의 왕이 되었다.

17) (朝鮮) 洪翼漢, 《花浦先生朝天航海錄》卷之二, 한국문집총간 《연행록선집》 전자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GO_1414A_0020_030_0090_2004_002_XML

www.kci.go.kr

昌樂은 본래 옛 營邱의 땅이다. 漢나라 때는 營陵縣이었으며 宋나라 때는 이곳에 安仁縣을 설치하였다가 곧 昌樂縣으로 바꾸었다. 元나라 때는 濰州에 속하였으며 明나라 때는 元나라의 소속을 바꾸어 靑州에 속하게 되었다. 이곳은 濰縣에서 105리 떨어져 있다. 현 경계의 동쪽에는 "淸聖遺跡"이라는 방표가 있다. 孤山은 그 남쪽에 있으며 伯夷가 紂王을 피하여 北海의 물가에 거주하였다는 곳이 곧 여기이다. 산 위에는 "夷齊廟"가 있다. 이 산에서 祈雨祭를 지내면 곧 영험한 반응이 있었다. 郡志에 孤山의 기풍은 천박한 사람들을 엄숙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昌樂本古營邱地. 漢爲營陵縣, 宋於此置安仁縣, 尋改昌樂, 元屬濰州, 大明改元屬, 屬靑州. 自濰縣百五里也. 界之東, 表"淸聖遺跡". 孤山在其南, 伯夷避紂, 居北海之濱, 卽此. 上有夷齊廟. 祈雨此山輒應. 郡志 : 孤山之風可肅薄夫.[18]

김덕승은 창락현의 연혁을 기술한 후에 창락현의 동쪽 경계 부근에 "淸聖遺跡"의 坊表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니, 홍익한이 지났다고 한 "淸聖遺蹤"과 동일한 坊表일 것이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孤山은 백이가 주왕을 피해 북해의 물가에 머물렀다던 장소이며 그 위에 "夷齊廟"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곳이 앞서 이덕형이 말한 백이와 숙제를 기리는 사당의 명칭임을 알 수 있다.

1625년 聖節使였던 全湜은《沙西航海朝天日錄》의 북경행 여정 중에서 유현 - 창락현을 지나는 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0월) 17일, 壬辰. 맑고 바람이 불었다. 昌樂縣까지 이동한 후에 점심을 먹었다. 창락현은 濰縣으로부터 50리 거리에 있다. 도중에 "淸聖遺跡"이 있는데, 생각건대 伯夷가 紂임금을 피할 때 靑州로 향해 온 듯하다. 청주부는 이곳으로부터 70리 거리에 있다. 날이 저물고 길이 멀어서 일행들과 나귀 주인이 모두 멈추어 유숙하기를 청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유숙하였다.

(十月)十七日, 壬辰. 晴風, 行到昌樂縣, 中火. 縣去濰縣五十里. 中路有"淸聖遺跡", 想是伯夷避紂時也, 將向靑州. 州去此七十里, 以日暮道遠, 一行諸人及驢主, 皆請止宿, 遂留焉.[19]

전식 역시 창락현 부근에 "淸聖遺跡"이라는 표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김덕승, 홍익한이 지나갔던 "淸聖遺跡"의 坊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28년 冬至聖節謝恩使의 서장관이었던 申悅道는《朝天時聞見事件啓》의 북경행 여정에서 유현 - 창락현을 지나갔던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18) (朝鮮) 金德承,《天槎大觀》,〈昌樂縣〉,《연행록속집》106책 68-69쪽.

19) (朝鮮) 全湜,《沙西航海朝天日錄》,《연행록전집》10책 370쪽.

www.kci.go.kr

(10월) 12일, 己亥, 맑음. 아침에 (濰縣을) 출발하였다. …… 또 위나라 효자 "王裒"의 옛 마을과 "逄萌故里"를 지났다. 멀리 孤山이 바라보이는데, 그 위에 "伯夷廟"가 있다. 옛날 伯夷가 北海의 물가에 거주했다고 하여 후인들이 그를 기려 제사를 지낸 것이다. 길의 옆에 碑가 있고 "伯夷待淸處"라는 다섯 글자가 새겨져있다. 저녁에 昌樂縣 東館에 도착하였는데, 역관은 濰縣으로부터 50리 거리에 있다.(知縣은 劉秀芳이다.)

(十月) 十二日, 己亥, 晴. 早發(濰縣) ……又過魏孝子王裒及逄萌故里, 望見孤山, 上有伯夷廟, 以伯夷居北海之濱, 故後人因祀之. 道側有碑, 刻"伯夷待淸處"五字. 夕抵昌樂縣東館, 馹距濰縣五十里. (知縣劉秀芳).[20]

신열도는 멀리 바라보이는 孤山에 "伯夷廟"라는 사당이 있음을 언급했으며, 길옆에 "伯夷待淸處"라는 석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 역시 앞서 윤훤과 홍익한이 보았던 것과 동일한 석비일 것이다. 신열도는 귀국길에 빠르게 이동하며 대략 하루에 100리의 거리를 서둘러 움직였으므로 경유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1630년 陳慰使의 정사로 사행길에 올랐던 鄭斗源의《朝天記地圖》는 그가 경유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지도의 삽화와 함께 수록하였는데, 백이의 유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濰縣으로부터) 40리를 이동하니 欞門이 나타났는데, "淸聖遺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碑가 있는데 "伯夷待淸處"라고 쓰여 있다. 孟子가 "伯夷가 紂를 피하여 떠나서 北海의 해안에 거주하면서 天下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곧 이곳이다. 또 다른 碑가 있는데, 쓰여 있길 "孤山夷齊廟"라고 하였다. 사당은 孤山의 정상에 있다. 孤山은 (창락)縣 동쪽 10리 거리에 있으며 높이는 대개 우리나라의 鞍峴山과[21] 같다.

(自濰縣)行四十里, 有欞門, 書之曰："淸聖遺蹤". 又有碑, 書之曰："伯夷待淸處", 孟子曰："伯夷避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淸"者, 卽此也. 又有碑, 書之曰："孤山夷齊廟", 廟在孤山之上.

20) (朝鮮) 申悅道,《朝天時聞見事件啓》,《연행록속집》106책, 163쪽.

21) 안현(鞍峴)은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峴底洞)부터 홍제동(弘濟洞)까지 이어지는 산언덕으로 안산(鞍山), 모악산(母嶽山), 혹은 고유어로 "길마재", "기르마재"라고도 불리는 서울의 서쪽 산이다. 봉원사(奉元寺)와 연세대 및 이화여대를 품고 있는 높이 296m의 산이다. 한양의 내백호(內白虎・명당의 서쪽을 막아주는 안쪽 산줄기)인 인왕산에서 서쪽으로 다시 갈라져 인왕산 서쪽을 겹으로 막아주고 있으니 한양의 외백호(外白虎)에 해당한다. 이 산을 안산(鞍山) 또는 안현(鞍峴)이라 부르는 것은 산 모양이 말안장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길마는 안장이란 뜻의 순 우리말이므로, 안현이나 안산은 길마재의 한자식 표기일 것이다. 모악산 또는 모악재라 부르는 것은 풍수설에 의해서 생겨난 이름이다. 서울의 조산(祖山・풍수설에서 명당의 근원이 되는 으뜸산)인 삼각산(북한산)은 부아악(負兒岳・애 업은 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를 업고 서쪽으로 달아나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서쪽 끝의 길마재를 모악(母岳・어미산)이라 하고 그 아래 연세대 부근 야산을 떡고개라 했다 한다. 어미가 떡으로 아이를 달래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어떻든 이런 길마재 위에는 태조 때부터 봉수대(烽燧臺)를 설치하여 매일 저녁 봉홧불을 올리게 했다. 무사하면 봉홧불 하나를 올리고 외적이 나타나면 두 개, 국경에 가까이 오면 세 개, 국경을 침범하면 네 개, 싸움이 붙으면 다섯 개를 올리도록 했다. 따라서 평화시에는 늘 봉홧불 하나가 길마재 상봉에서 타오르기 마련이었다.
[출처] 겸재 정선의 한양진경 14 - 안현석봉(鞍峴夕烽) https://blog.naver.com/ooc1001/221385037740

www.kci.go.kr

孤山在縣東十里, 其高如我國之鞍峴.[22]

정두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 사신들의 사행로 옆에 백이와 숙제의 유적지를 가리키는 표지물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었던 셈이다. 유현으로부터 창락현까지의 거리는 50리인데, 유현으로부터 서쪽으로 40리를 이동한 거리, 즉 창락현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 거리에 "淸聖遺蹤"이라는 패문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 "伯夷待淸處"라고 쓰인 석비와 "孤山夷齊廟"라고 쓰인 석비가 있었다. "孤山夷齊廟"라고 쓰인 석비는 앞서 윤훤이 보았다고 했던 "夷齊祠"의 석비와 같은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 외에 "이제묘"는 孤山 위에 있으며 고산은 현 동쪽 10리 거리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유현 – 창락현을 지났던 조선 사신들의 기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중복되는 지형물을 종합해보면, 창락현 동쪽 10리 즈음에 백이와 숙제의 유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淸聖遺蹤"의 패문과 "伯夷待淸處"라고 쓰인 석비, 그리고 "孤山夷齊廟"라고 쓰인 석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夷齊廟"의 사당은 창락현 동쪽 10리 거리에 있는 孤山 위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 사신들은 유현으로부터 창락현 동쪽 경계로 향하는 길에서 백이와 숙제의 유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표지물을 보았고, 백이와 숙제를 제사 지내는 "이제묘"가 孤山에 있음을 알았지만 아마 일정상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만한 것은 동일한 해로사행길을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1621년 辯誣謝恩兼冬至聖節 사신단의 서장관 安璥이 편찬한《駕海朝天錄》이나,[23] 1622년 登極使 일행의 정사 吳允謙이 사행 노정을 기록한《秋灘東槎朝天日錄》에는[24] 북경행이나 귀국길에 기록된 유현 – 창락현 - 청주부의 노정 중에 백이와 숙제의 유적이나 사당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백이와 숙제의 유적은 유교 문화에서 의미가 있는 유적지이므로, 안경과 오윤겸이 노정 중에 관련 기록이나 사적을 보았다면 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623년 冬至聖節兼謝恩使의 정사 趙濈은 1623년 10월경에 유현 – 창락현 구간을 지났는데, 역시 백이와 숙제와 관련한 유적지를 보았다는 기록이 없다. 그가 편찬한《癸亥水路朝天錄》

22) (朝鮮) 鄭斗源《朝天記地圖》.

23) (朝鮮) 安璥《駕海朝天錄》, "9일. 맑음. 昌樂에서 점심을 먹었다. …… 縣의 서쪽 5리에 "方朔舊壟"이 있고, 10리에 "古劇南城"이 있다. 기타 패문이 곳곳에 많은데, 王裒와 逄萌의 유적이라든가 "放勳橋", 堯溝 등이 있다. 또 "墾闢荒田"이라는 석비가 세워져 있고 "益都縣新建官莊"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護鳳河를 건너고 汩洱河를 건넜다. 南姓의 人家에서 유숙하였으니 모두 80리 길이다.(初九日. 晴. 中火于昌樂. …… 縣西五里有"方朔舊壟", 十里有"古劇南城", 其他題門處多, 是王裒, 逄萌之古迹, 又有放勳橋, 堯溝, 又立石曰"墾闢荒田", 又曰"益都縣新建官莊", 渡護鳳河, 又渡汩洱河, 宿南姓人家, 共八十里.)"《연행록속집》104책 259-260쪽.

24) (朝鮮) 吳允謙《揪灘東槎朝天日錄》, "(9월) 21일, 맑음. 아침에 출발하여 창락현을 지나서 성 밖 五里鋪에서 말을 쉬게 했다. 패방에 "齊初封地"라고 쓰여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곳이 太公이 봉해진 곳(영구營丘)이다. 지나가는 길 옆에 또 패방이 있었고 "方朔古壟"라고 쓰여 있고, 또 패방이 있었는데 "逄萌古里"라고 쓰여 있었다. "漢亭店"에 숙박하였다.((九月)二十一日, 晴. 早發過昌樂縣, 歇馬城外五里鋪, 榜曰齊初封地. 想是太公所封也. 所過路傍, 又榜曰方朔古壟, 又榜曰逄萌古里, 宿漢亭店.)"《연행록속집》105책, 245쪽.

www.kci.go.kr

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0월) 17일, 甲戌. 맑음. 아침에 길을 떠나서 20리를 간 후 王裒故里에 도착했다. …… 해저물녘이 되어 창락현 남관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등주에서 나올 때 남녘으로 수백리에 길게 펼쳐진 萊山을 바라보았는데 그 후 칠팔 일 오는 동안에는 멀리 넓은 들만 바라보이고 언덕도 하나 없었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서남쪽에 조그만 산이 보였다. 산 위에 옛 무덤이 있었는데 높이 솟은 모양이 봉화대 같기도 하였다. 행인에게 물어보았더니, "강태공의 아들의 무덤이오. 태공의 무덤도 그 뒤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믿을만한지 모르겠다. 오늘은 오십리를 갔다.
>
> (十月) 十七日,甲戌.晴. 朝發二十里到王裒故里. …… 日才斜, 到昌樂縣南關宿. 自登州發行時, 南望萊山橫亘數百里, 厥後七八日行路, 極目平原, 不見丘陵. 今日始見西南間有一小垤, 山頂有古墳, 嵬然如烽燧堠, 問于行人, 則答以姜太公之子之墓. 太公墓亦在其後云, 未知信否. 今日行五十里.[25]

조즙의 기록에 의하면 유현에서 창락현으로 가는 길은 사방으로 넓은 평원뿐이었지만 창락현에 가까이 왔을 때 서남쪽으로 작은 구릉 같은 산이 보였다고 한다. 창락현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남쪽에 있는 산이고 다른 산이 있다는 기록이 없으니, 창락현 동쪽 10리 거리에 있는 孤山일 가능성이 크다. 행인에게 어떤 곳인지 물으니 강태공과 그 아들의 무덤이라고 답하였다는데, 조즙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그림 1>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航海朝天圖》〈齊昌樂縣(圖)〉에 나타난
夷齊廟(왼쪽 위)

青州府 夷齊廟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 사신의 연행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24년 3월 무렵이고, 그 후로 1630년까지의 연행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621년이나 1622년, 그리고 1623년의 사행길에서 안경과 오윤겸, 그리고 조즙이 지나왔던 유현 - 창락현 사이의 사행 노정에는 백이와 숙제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어쩌면 이후에 지나간 사신들이 경유한 길과 약간 달랐던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혹은 1623년 10월 조즙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유현 – 창락현 부근의 사행길에는 백이와 숙제의 유적을 표시하는 표지물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孤山의 역사 유적을 잘 모르는 채 지냈으나, 조선 사신들이

25) 趙濈 저, 최강현 역,《계해수로조천록》, 108-109쪽. 趙濈,《癸亥水路朝天錄》,《연행록전집》12책, 294-295쪽.

www.kci.go.kr

이 관도를 계속 이용하게 되자 이곳에 “이제묘”라는 명승고적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물이 1624년에 생겨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림 2> 지금의 昌樂縣 朱劉街道 十里堡村 남쪽에서 멀리 孤山을 조망한 모습

3. 山東 靑州府 夷齊廟의 연혁과 변천

백이와 숙제는 商末周初라는 먼 고대의 역사 인물로서 알려진 역사기록이나 유적, 문헌 자료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백이와 숙제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옛 孤竹國의 땅이나 백이와 숙제가 굶어죽었다고 알려진 首陽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설이 존재해왔다.[26] 民國 시기에 간행된 《盧龍縣志》의 〈夷齊廟詩序〉를 보면, 수양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적어도 다섯 곳이 있다고 설명한다.

> 盧龍의 孤竹城에는 夷齊廟가 있다. 역사에 칭하길, 백이와 숙제는 周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首陽山에서 굶어죽었다고 한다. 《詩經》의 노래에 ‘씀바귀를 캐세, 씀바귀를 캐세. 수양산의 꼭대기에서.’라는 곡이 있다. 疏에 (수양산은) 河南의 蒲坂 지역이라고 하였다. 《莊子》에서는 首陽山이 岐山 서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曹大家는 隴西 지방에 있다고 하였고, 《元和郡國志》에는 首陽山이 河南 偃師 지역에 있다고 하였으며, 《說文》에는 遼西에 있다고 하였으니, 首陽山이라는 곳이 모두 5개이며 각각 증거도 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가 굶어죽은 곳은 한 군데일 뿐이다. 장차 어느 설명을 따라야겠는가. 다만 《遼史》에 기록된 바를 보면 營州는 海軍에 맞닿은 下刺史州로 본래 商나라 孤竹國의 땅이라고 하였다.

26) 孤竹國은 殷나라 때 灤河 하류 지역에 分封된 중요한 제후국으로, 《史記索隱》에는 “湯 정월 丙寅에 支庶 墨臺氏를 孤竹에 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죽국의 구체적인 지역과 범위,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문헌과 고고학 자료의 결핍으로 알려진 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많다. 何光岳, 〈孤竹의 來源과 변천〉(《黑龍江民族叢刊》, 1991년 제2기), 60-63면. 楊雨蕾, 〈明淸 시기 永平府 夷齊廟의 변천과 조선 사신의 ‘백이·숙제 고사’에 대한 인식〉 160쪽 재인용.

www.kci.go.kr

지금의 盧龍이 즉 遼나라 營州 지역이다.27)

이 글에 의하면, 여러 문헌에 기록된 바를 증거로 삼아 백이와 숙제가 굶어죽은 首陽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은 河南의 蒲坂 지방, 岐山 서북쪽 지방, 隴西 지방, 河南 偃師 지방, 遼西 지방 등이다. 수양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다섯 지역 이상이나 되니 어느 곳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盧龍縣은 옛 商나라 孤竹國이 있던 지역이므로 이곳 孤竹城에 이제묘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夷齊廟는 昌樂縣 뿐만 아니라 명대의 盧龍縣, 蒲坂 등 여러 곳에 존재하였다. 백이는 맹자에 의해 "淸聖", 즉 "청정한 성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백이와 숙제와 관련된 장소에 그들을 기리는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풍습이 전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靑州府 昌樂縣에 夷齊廟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창락현이 속한 청주부에 대해 조선 사신 李民宬은 중국 지방지를 참조하여 기록하였다.

> 靑州郡은 齊郡이라고 하고 또 北海라고도 불리니, 곧 〈禹貢〉의 靑州 지역이다. 武王이 太公을 이곳에 봉하여 齊國이 세워졌다. 秦나라 때는 齊郡이 설치되었고 漢나라 때는 北海郡으로 나뉘었다. 宋나라 때는 鎭海軍으로 바뀌고 元나라 때는 益都路로 바뀌었다가 本朝에는 府로 변경되었다. 州의 屬縣은 13개이다. …… 昌樂縣은 府 동쪽 70리 거리에 있고 옛 營丘의 땅이다.28)

창락현에 이제묘가 세워진 이유는 "백이가 주왕을 피하여 북해의 물가에 은거하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伯夷避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淸)"라는 《맹자》의 내용으로부터 온 것인데, 즉 선진 시기의 北海는 곧 유현과 창락현 일대였으므로 백이가 은나라 주왕을 피해 이곳에서 머물렀던 역사를 기념하고자 한 것이다.

청주부 이제묘가 처음 건립된 것이 어느 때인지는 현재 고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昌樂縣志》와 《靑州府志》, 《山東通志》, 《大明一統志》, 《大淸一統志》 등의 지방지에 수록된 여러 자료

---

27) 〈夷齊廟詩序〉, "盧龍孤竹城, 夷齊廟在焉. 史稱夷齊耻食周粟, 餓死首陽. 《詩》云: '采苓采苓, 首陽之顚.' 疏謂在河南蒲坂, 而《莊子》則曰首陽山在岐山西北, 曹大家云在隴西, 《元和郡國志》謂首陽山在河南偃師, 《說文》又謂在遼西. 則是首陽凡五, 各有證據, 而其爲夷齊餓死之處則一也. 將孰之從, 惟《遼史》所載, 營州臨海軍下刺史, 本商孤竹國, 今之盧龍, 卽遼營州地也。《爾雅》所擧孤竹, 北戶, 注謂孤竹在北. 周時幅員不廣, 其以此處爲極北, 故宜. 然則《說文》所謂首陽山在遼西者, 此爲近之. 殆以詩在《唐風》, 而叩馬而諫當武王伐紂之時, 由是岐、隴、蒲、偃, 皆附會其說耳. 夫夷齊淸風在, 天下何處非首陽, 豈爭疆城乎? 冕旒而墨胎以祀者, 尤非其志. 因系以詩而考其說如此." 董天華等修, 李茂樹等纂, 《盧龍縣志》(民國二十年鉛印本, 載 中國方志叢書 , 華北地方 145, 臺灣成文出版社, 1967), 132면. 楊雨蕾, 〈明淸 시기 永平府 夷齊廟의 변천과 조선 사신의 '백이·숙제 고사'에 대한 인식〉 161쪽 재인용.

28) (朝鮮) 李民宬, 《敬亭先生續集》권2, 《癸亥朝天錄》, "靑州郡名齊郡。又云北海。卽禹貢靑州之域。武王封太公於此爲齊國。秦置齊郡。漢分北海郡。宋改鎭海軍。元改益都路。本朝改爲府。屬州一縣十三。……曰昌樂。府東七十里。亦古營丘地。" 한국문집총간전자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298A_0190_010_0010_2003_A076_XML

www.kci.go.kr

를 통하여 대강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다. 至正 9년(1349)에 元나라 王登은 〈重修北海孤山廟碑記〉라는 문장을 지어서 고산에 있는 사당을 중건한 記文을 남겼다. 이 문장은 淸 嘉慶14년(1809)에 간행된 嘉慶《昌樂縣志》에 수록되었는데, 지방지에 수록된 문장 중에 이제묘의 건립과 중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인다.

伯夷와 叔齊의 姓은 墨氏이다. 형은 允이고 字는 公信이며, 동생은 智이고 字는 公達이니, 夷와 齊는 諡號이다. 백이는 紂王을 피하여 北海의 물가에 은거하였는데, 지금 묘는 河東 蒲坂 雷首의 남쪽에 있다. 濰 지역은 옛 北海 지방이다. 孤山은 청주로부터 서쪽 약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백이와 숙제를 기려서 그 위에 사당을 세웠다. 秦漢 이래로 몇 번이나 세워지고 허물어졌는지 모른다. 宋 崇寧 연간의 石文을 보니 爵位를 하사한 기록이 있지만, 사당의 시작에 대해서는 고찰할 수 없다. 憲天述道仁文義武大光孝皇帝가 즉위한 후에 폐지되었던 여러 제도를 부흥시켜 명산대천이나 옛 성현의 유적들에 모두 시호와 전례를 하사하였다. 至元 辛巳(至元18년, 1281) 겨울 10월에 명이 내려져 백이는 昭義淸惠公에, 숙제는 崇讓仁惠公에 추증되었다. 사당의 옆에는 龍神廟가 있는데, 역시 孚澤廣靈侯에 추증되었다. 주민들이 말하길, 가뭄이 든 해에 기도를 올리면 곧 효응하여 항상 온 지방에 비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당이 무너진지 이미 오래되어 신령이 깃들 곳이 없었다. 至正 己丑(至正9년, 1349), 古襄 趙侯가 山東東西道宣尉使가 되어 濰守 張萃澈에게 신축하도록 명하였다. 의구심 많은 자들은 말하길, 北海에 은거하였던 사람은 백이이고, 숙제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비록 그렇지만 수양산에서 굶어 죽을 때 형제가 함께 하였으니 어찌 (숙제가) 피난할 때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갔겠는가? 아니면 두 분의 현명함을 흠모하여 형에게 제사 지내면서 동생도 배향하도록 한 것이리라. 나는 일찍이 洪氏의 논의를 읽고 생각하였다. 武王이 紂王을 정벌할 때 太公은 무왕을 도왔고 伯夷는 무왕을 비난하였다. (강태공이) 도왔던 것은 천하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백이가) 비난한 것은 만고에 남아 기강이 문란해질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으니 그 마음가짐은 동일했다. 그렇지 않다면 은나라의 세 명의 인자가 혹자는 떠나가고 혹자는 떠나가지 않았으며, 혹자는 죽고 혹자는 죽지 않았는데도 어찌 모두 인자라고 칭해지겠는가? 나는 감히 다른 논의를 세울 수 없으니, 옛사람이 확증한 논의를 특별히 적어둔다.[29]

이 글에 따르면 원대에 백이와 숙제의 묘는 河東 蒲坂 雷首의 남쪽에 있지만, 유현과 창

29) (元)王登, 〈重修北海孤山廟碑記〉, "伯夷叔齊姓墨氏, 長允字公信, 季智字公達, 夷齊諡也。伯夷避紂居北海之濱, 墓在河東蒲坂雷首之陽。濰古北海。孤山去州西幾半百, 邦人思之, 立祠其上。秦漢而下, 不知幾興廢矣。觀亡宋崇寧石文, 有進爵之賜, 立祠之始, 無自考焉。憲天述道仁文義武大光孝皇帝卽位以來, 百廢具擧, 名山大川, 古聖前賢, 咸頒諡典。至元辛巳冬十月, 宣命贈伯夷昭義淸惠公, 叔齊崇讓仁惠公。祠旁有龍神廟, 亦贈孚澤廣靈侯。居民謂遇歲旱嘆, 禱輒應, 一方恒霑濡焉。廟圮已久, 神無所所依。至正己丑, 古襄趙侯爲山東東西道宣尉使, 命濰守張萃澈新之。疑者謂居北海者, 伯夷也, 不聞叔齊。雖然, 首陽之餓, 兄弟同之, 豈避亂而舍而他適乎? 否則慕二公之賢者, 因祀其兄而配其弟也。登嘗讀洪氏之論曰：武王伐紂, 太公佐之, 伯夷非之。佐之者以拯天下之溺, 非之者以懲萬古之亂, 其用心一也。不然, 則殷之三仁, 或去或不去, 或死或不死, 何以皆得爲仁耶? 登不敢別立異議, 特書前人之確論云。" 淸嘉慶十四年刻本.

www.kci.go.kr

락현이 옛 北海 지방이었으므로 백이와 숙제가 옛날 북해에 은거하였음을 기려서 孤山에 사당을 건립한 것임을 밝혀 말하였다. 당시에는 그 사당을 "孤山廟"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秦漢 때부터 사당이 건립되었던 것 같지만 정확한 시작은 알 수 없고, 다만 宋 崇寧 연간(1102-1106)에 작위가 내려졌음을 기록한 石文이 전해지고 있으니, 元 至元18년(1281) 겨울 10월에 伯夷는 昭義淸惠公에, 叔齊는 崇讓仁惠公에 추증되었다.

왕등의 설명에 따르면, 백이와 숙제를 제사 지내는 사당을 다시 지으면서 "孤山廟"라고 불렀다. 사당의 옆에는 또 "龍神廟"가 있는데, 기우에 영험한 능력을 보인 고산의 신령을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龍神 역시 孚澤廣靈侯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사당이 무너져서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없었으므로, 至正 9년(1349)에 濰守 張萃澈이 명을 받고 다시 건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왕등은 태공이 무왕을 도운 것과 백이, 숙제가 무왕을 비난한 것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로부터 약 125년 뒤인 1474년에 고산의 사당은 다시 중수되었다. 명나라 李昂은[30] 成化 연간(1465—1487)에 山東 靑州知州로 부임하여 8년간 재임하면서 고을의 명소들 가운데 훼손되거나 낙후된 곳을 세심하게 살펴서 재정비하였는데, 그중의 하나로 고산에 있던 사당을 다시 중수하였고 이를 기념하는 廟記를 남겼다. 이앙은 成化 甲午(成化10년, 1474) 여름에 고산에 있는 사당을 중수하면서 "昭賢廟"라고 지칭하였으니, 이앙이 지은 〈重修昭賢廟記〉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지금의 昭賢廟 앞의 석비의 잔해. 위에 "北海孤（山）夷齊廟"라고 새겨져 있다.

> 靑州는 옛 北海郡이다. 동쪽 70리에 창락현이 있고, 창락현 동쪽 10리에 孤山이라는 산이 있고 昭賢廟가 있다. 전하는 말로 백이와 숙제가 일찍이 이곳에 은거하였다고 하므로, 宋과 元에 걸쳐 모두 廟記가 전해진다. 어떤 글에는 백이가 讓位한 후에 이곳에 왔다고 하고, 어떤 글에는 孟子가 말한 대로 백이가 紂王을 피해서 왔다고 하니, 지금 세월이 오래되어 상세히 살필 수 없게 되었다. 맹자는 백이와 숙제가 北海의 물가에 은거하였다고 말했는데, 紂王을 피했다는 이야기에 근거하여 더 상세히 말한 것이다. 산의 높은 곳은 우뚝하면서도 평평하니 탁 트여있고 나무나 풀이 나지 않았다. 묘당은 그 우뚝한 곳에 자리했는데 그곳을 가려줄 깊

30) 李昂(생졸년 미상)은 字가 文擧이고, 明代 仁和(지금의 杭州)사람이다. 景泰 5년(1454) 進士 출신으로, 그의 처는 明代 才女로 이름난 陳德懿이다. 成化 연간(1465—1487)에 山東 靑州知州로 부임하여 8년간 재임하면서 기아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실정을 살피고 구휼하며 인근의 굶주린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등의 구휼 정책을 펼쳐 탁월한 치적을 세웠다. 이앙은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福建左參政, 山東右布政使, 都察院副御史 등의 관직을 지냈다.

www.kci.go.kr

은 숲이나 큰 나무가 없어서 오랜 세월을 거치며 비바람에 훼손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을 수리할 생각을 했지만 맡을 사람이 없어서 곤란했다. 成化 甲午(1474, 成化 10년) 여름에 安邱丞 袁麟이 마침 나의 檄文을 받들고 관청에 와서 縣의 사무를 보아주었으므로, 이 일을 그에게 맡겼다. 결과적으로 관청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면서 한 달 안에 수리를 완료하였고, 나에게 記文을 써주기를 청하였다. (후략)[31]

이 글에서 창락현 동쪽 10리에 있는 孤山 위의 정상 평평한 곳에 昭賢廟라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며 훼손되었으므로 1474년에 수리하게 되었고, 안구승 원린이 일을 맡아주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당시에 고산의 위치와 사당이 있던 곳의 지형, 그리고 사당이 "소현묘"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다시 약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인 1530년경 고산의 사당은 낡고 훼손되어 다시 한 차례 중수를 거친다. 가정 연간에 山東監察御使로 부임하였던 明 熊榮은[32] 〈重修昭賢祠記〉라는 문장을 적어서 고산의 "昭賢祠"를 다시 중수하게 된 경위를 기록하였다. 아래에서 〈重修昭賢祠記〉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昌樂 동쪽 10리쯤에 있는 孤山 위에는 夷齊祠가 있는데, 기록이 祀典에 전한다. 漢나라부터 唐, 宋 그리고 지금의 明나라에 이르기까지 바뀐 것이 없다. 有司가 봄 2월과 가을 8월에 정해진 법도대로 제사를 지낸다. 庚寅(1530) 가을 7월에 磨溪 熊子는 풍속을 감찰하다가 사당에 가서 알현하였다. 사당은 오랜 세월이 흘러 흙담이 무너지고 비바람을 가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신령이 평온하게 자리 잡기에 부족하여 심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이에 知縣 黃軏에게[33] 명하여 법제를 따라 사당을 바꾸어 새롭게 짓도록 하였다. 편액에 "昭賢"이라고 쓴 것은 옛 명칭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가운데는 사당이 있고, 앞에는 대문이 있으며 좌우로는 행랑이 있는데, 각 세 칸이다. 계단을 만들고 주위에는 담장을 둘렀으니 규범에 제법 맞도록 일하였다. 재목은 여러 불사에서 거두어들였고 돌은 산에서 채취하여서 관청의 돈을 빌리지 않았다. 공사를 시작하니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모

31) (明)李昂, 〈重修昭賢廟記〉, "靑州故北海郡, 東七十里, 治縣曰昌樂。縣之東十里 , 有山曰孤山, 廟曰昭賢。說者謂夷、齊嘗居於此, 故歷宋、元皆爲廟記。一本其傳謂讓位來此, 一本諸孟子謂辟紂, 雖世遠, 遠不復可詳。孟子謂其居北海之濱, 則本諸辟紂審矣。山高處兀然而平, 濯然不生草木, 而廟當其兀然, □無深林大木爲之蔽藏, 歲久壞於風雨。余久欲葺之, 而艱其人。成化甲午之夏, 安邱丞袁麟適奉余檄來署縣事, 遂以其事付之。果不費於公, 不煩於民, 不踰月而告成, 請記於余。(후략)" 嘉慶《昌樂縣志》卷十一, 《藝文考》, 淸嘉慶十四年(1809)刻本, 12쪽b.

32) 乾隆《大淸一統志》卷176《光州》, "熊榮의 字는 以仁이고 光山 사람이다. 正德 연간(明武宗 연호, 1506 - 1521) 進士이며 行人의 벼슬을 받았다. 明武宗의 南巡을 반대하는 간언을 올렸다가 杖刑을 받고 學錄으로 강등되었다. 얼마 후에 御史로 발탁되어 山東을 감찰했으며 磺賊의 亂을 평정하였다. 후에 雲南按察使가 되어 岑猛을 정벌할 때 협력하여 공적을 세웠고 參政의 관직을 역임하였다.(熊榮, 字以仁, 光山人. 正德進士, 授行人. 諫武宗南巡, 被杖, 降學錄. 尋擢御史, 按山東, 平磺賊之亂. 移按雲南, 協征岑猛有功, 歷官參政.)" 淸文淵閣四庫全書本, 30쪽a.

33) 嘉靖七年(1528)至十五年(1536)任.

www.kci.go.kr

여들었다. 이십 일쯤 지나서 준공한 뒤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아주 흡족해하며 우러러보았다. 同知 張世選이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 하며 나에게 記를 청하였다. 내가 보니, 고금의 경전 중에 백이와 숙제의 일을 상세하게 논한 것이 많다. (중략) 그 덕이 동일하니, 제사를 지내는 것도 동일하다. 昌 지역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그들의 출생지를 기리는 것이다. 首陽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다. 孤山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그들의 거처를 기리는 것이다. 당시는 나라를 양보한 후이고, 말머리를 잡기 전이니, 맹자가 말한 北海之濱이란 즉 그 지역일 것이다. 또 지도와 지방지를 살펴보니, 孤山은 옛날에 濰州의 北海郡에 속하였는데 지금은 등급이 낮아져 縣이 되었고 孤山이 昌樂縣에 속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사 지내는 것은 유래가 있는 것이다. 그 신령을 존숭하여 불러 축복하고 비문을 복원하여 일시를 기록하니, 이로써 마을 사람들이 (백이와 숙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34]

熊榮은 孤山에 있는 夷齊祠에 옛 명칭을 따라서 “昭賢”이라는 편액을 붙이고 이 사당을 “昭賢祠”라고 불렀다. 사당의 규모는 꽤나 커서 가운데 대전이 있고, 앞에는 대문이 있으며 좌우로는 각 세 칸의 행랑을 두었다. 사당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고 주위에는 담장을 둘렀으니 제법 규모를 갖추었다. 웅영은 이 문장에서 首陽의 이제묘는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고, 孤山의 이제묘는 그들이 은거했던 것을 기리는 의미라고 하였다. 明 趙鑑(1453-1537)은[35] 웅영이 산동감찰어사가 되어 “소현사”를 중수한 것의 의미를 기념하고 일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崇正記〉를 지었다. 문장을 통해 고산은 용이 웅크리고 틀어앉은 형상이며, 1530년에 同知府事 張世選과 知縣 黃軏이 감찰어사 웅영의 부탁을 받고 “소현사”의 옛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특히 東朱寺 佛殿의 세 기둥을 이동하여 새로운 묘실을 중건하고 옛 사당의 규모를 복원하고자 하였다고 서술하였다.[36]

---

34) (明) 熊榮, 〈重修昭賢祠記〉, “昌樂東十里許孤山上有夷齊祠, 載在祀典。自漢而唐而宋及國朝, 未之有改也。有司春秋二仲從事制也。庚寅秋七月, 磨溪熊子以觀風過謁祠下, 見其年久久傾圮, 風雨弗蔽, 非以妥靈宅神, 深用惻焉。遂命知縣黃軏易而新之, 遵制也。額曰昭賢, 仍舊名云。中爲祠, 前爲門, 左右爲廂, 各三楹。登有級, 圍有墻, 規制頗稱之役也。材撤諸佛舍, 石取諸山, 不藉諸官也。工則邑人樂而趨之, 不强諸民也。旬有十日事竣, 鄉之人大愜瞻仰。同知張世選以輿情請記。按古今經傳叙論夷齊之事詳矣。(중략)其讓國而逃, 叩馬而諫, 採薇而餓, 父子兄弟君臣之大倫大義, 凜然清風, 千古一日, 孰不知之? 亦孰不能論之? 但其中差有不同。夫太史列傳未免錯簡, 莊子激而不經, 呂、韓俱外傳, 唯孔、孟之言可信無疑。孔子曰：伯夷、叔齊不念舊惡, 怨是用希。又曰：皆古賢人也, 求仁而得仁。又曰：不降其志, 不辱其身。未嘗優劣二子, 以其得仁同也。孟子曰：曰伯夷辟紂, 居北海之濱。又曰：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又曰：伯夷, 聖之清者也。意孟子不言叔齊者, 豈不以二子遜國求仁得仁, 擧伯夷而叔齊在其中乎? 由此觀之, 則二子誠仁且義, 賢而聖者也。昌黎所謂特立獨行, 窮天地、亘萬世而不顧者, 其德之同可見矣。其德同, 故其祀同。祀於昌, 其生也；祀於首陽, 其死也；祀於孤山, 其所寓也。時在遜國之後, 叩馬之前, 孟子所謂北海之濱者, 卽其地焉。又按圖誌, 孤山舊屬濰州之北海郡, 今降而爲縣, 以孤山屬昌樂, 祀有由然矣。奠而招之, 以祝復碑, 以識歲月, 以慰邑人之思云。”, 嘉慶《昌樂縣志》卷十一, 《藝文考》, 淸嘉慶十四年刻本, 11쪽b.

35) 趙鑑(1453-1537)의 자는 克正이고 靑州府 壽光縣 (지금 山東 靑州市 高柳鎭 趙家營村) 사람이다. 成化 23년, 34세의 나이로 진사에 합격하여 蕭山縣知縣을 맡아 丁田相折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하도록 하였다. 후에 广東道 監察御史와 南畿馬政監, 兩淮鹽法道 등의 관직을 지냈다.

www.kci.go.kr

그런데 웅영이 백이와 숙제의 사당인 “소현사”는 다시 중건하였지만, 고산의 신령인 용신을 제사 지내던 “龍神廟”를 중건하였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로부터 18년 뒤인 嘉靖 27년(1548)에 지현 朱木이[37] 이제묘를 다시 증축하였고 이제묘의 서쪽에 “고산묘”를 지었다. 이때의 “고산묘”는 즉 옛날의 “용신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용신묘”는 1548년에 이제묘를 증축할 때 다시 중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夷齊廟는 城 동쪽 孤山에 있다. 옛날의 규모는 매우 협소했는데 御史 熊榮이 知縣 黃軏에게 명하여 東朱寺殿의 재목을 가져다가 大殿 三間을 짓도록 하였고 양 쪽에 행랑을 덧붙여 지었다. 大殿의 동쪽에는 玩山亭을 지었고 돌담으로 주위를 둘렀으며, 대문을 더하였다. 사당은 하나는 東城門 밖에 元나라때 지어졌고, 다른 하나는 南城門 밖에 正德 연간에 지어졌다. 嘉靖 27년(1548), 知縣 朱木이 重修하면서 玩山亭을 바꾸어 仰止堂이라고 하였다. 夷齊廟의 편액은 송나라 때 “昭賢”이라고 사액되었고, 元文宗 至順 元年(1330) 겨울 10월에는 “聖淸”이라고 사액되었다. 孤山廟는 孤山 夷齊廟의 서쪽에 있는데 知縣 朱木이 중건하였다.[38]

위에 인용한 嘉靖《昌樂縣志》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묘는 송나라 때 사액된 뒤로 “昭賢廟”, “昭賢祠”라고 불렸고, 원나라 至順 元年(1330)에 사액된 뒤로 “聖淸廟”, “聖淸祠”라고도 불렸다. 그리고 1530년 熊榮의 명으로 중건될 때 꽤 큰 규모로 지어져서 대전 세 칸에 양쪽으로 행랑이 이어졌고 또 玩山亭이라는 정자도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산의 신령을 제사 지내던 “龍神廟”는 당시에 함께 재건되지 않았다가, 1548년에 朱木이 다시 이제묘를 수리할 때 비로소 이제묘의 서쪽에 고산 신령을 모신 사당인 “孤山廟”를 다시 중건하였

---

36) (明) 趙鑑, 〈崇正記〉, “靑州郡 昌樂邑 동쪽에 孤山이 있는데 언덕을 등에 지고 숲을 대면하고 있으며 동서로 밝고 넓게 트여 있다. 산은 높이 솟아있고 깊고 수려하며 용이 웅크리고 틀어 앉은 형상이다. 위에는 백이와 숙제의 사당이 있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훼손되었다. 嘉靖 庚寅(1530) 가을 7월에 巡按山東監察御史 熊公이 이곳을 지나던 도중에 사당을 알현하게 되었는데, 사당의 모습을 둘러보고 마땅치 않다고 여겼다. 이에 同知府事 張世選과 知縣 黃軏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탁하니, 東朱寺 佛殿의 세 기둥을 이동하여 옛것을 없애고 새로운 묘실을 세우면서 예전처럼 큰 규모를 따랐다. 이때 分守參政 張公과 分巡僉事 郝公과 兵司李公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옳다고 여겼다. (후략)(靑州郡昌樂邑東有孤山, 負埠面林, 東西昭廣, 高拔深秀, 自龍盤据, 上故有伯夷、叔齊廟宇, 歲久傾圮。嘉靖庚寅秋七月, 巡按山東監察御史熊公過此, 道謁祠下, 顧瞻廟貌, 弗稱安妥, 迺檄同知府事張君世選及知縣黃君軏, 移東朱店西佛殿三楹, 爲之剔舊鼎新, 仍大規囊。時分守參政張公、分巡僉事郝公、兵司李公皆聞而是之。(후략)” 嘉慶《昌樂縣志》卷十一, 《藝文考》, 淸嘉慶十四年刻本.

37) 朱木의 자는 子喬이고 常熟 사람이다. 明 嘉靖 23년(1544) 進士가 되어 昌樂知縣을 제수받았고, 이후에 南台御史로 발탁되어 上江을 순무하였다. 얼마 후에 山東道御史가 되었고 四道를 통섭하였다. 이후에 遂安知縣이 되었으며 叙州同知를 지냈다.

38) 嘉靖《昌樂縣志》卷二, “夷齊廟, 在城東孤山。舊規制甚隘, 御史熊榮命知縣黃軏毁東朱寺殿材木, 重建大殿三間, 翼以兩廡, 殿東爲玩山亭, 週圍繚以石垣, 益以大門。其廟一在東城門外元時建, 一在南城門外正德年建。嘉靖二十七年, 知縣朱木重修, 改玩山亭爲仰止堂。夷齊廟額, 宋賜廟額曰昭賢。元文宗至順元年冬十月, 賜廟額曰聖淸。孤山廟, 在孤山夷齊廟之西, 知縣朱木重建。” 明嘉靖刻本.

www.kci.go.kr

다고 한다.

그런데 명대의 청주부 관련 지방지 중에는 이미 창락현의 고산이 백이, 숙제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은 수양산이 아니라는 사실과 백이, 숙제가 태어난 孤竹國과도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창락현에 이제묘가 있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비평한 부분이 있다. 嘉靖《靑州府志》에 수록된 고산 관련 기록을 보자.

> 昌樂城 동쪽 10리에 孤山이 있다. 산봉우리가 가파르게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으며 동굴이 있는데 龍洞이라고 불린다. 옛날부터 夷齊祠가 있는데 昭賢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았고 지금은 聖淸이라는 편액으로 바뀌었다. 맹자가 말하길, "백이는 北海의 물가에 은거하였다"고 했으므로 이곳에 사당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秦漢 때 이미 사당이 세워졌고 그 옆에 수양산이 있었다고 한다. 생각건대, 首陽은 河東 薄坂에 있다. 또 지금의 永平 灤州가 孤竹의 땅에 속했으며 해안에 접하고 있다. 孤山에서 백이를 제사 지내는 것은 아마도 昌樂이 옛 北海의 땅에 속해있었던 것으로 인해 억지로 갖다붙인 것이다. 그리고 숙제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어찌 孤山을 孤竹山이라 하겠는가? 송나라 崇寧 연간에 숙제를 봉작하는 牒文이 있었고, 명나라 御史 熊榮이 〈昭賢祠記〉를 지었으며 尙書 趙鑑도 〈崇正記〉를 짓고 邑人 劉三畏도 〈孤山義田記〉를 지었으니 모두 縣志에 보인다.[39]

윗글에서 고산은 실제로 백이와 숙제가 굶주려 죽은 수양산이 아니며, 河東 薄坂 지역에 있는 수양산에 백이와 숙제의 무덤과 이제묘가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백이와 숙제의 고향인 孤竹國의 옛 땅은 명대의 永平府에 해당하며, 청주부의 고산을 고죽산이라고 여길 수 없다고 밝혀 말하였다. 다만 유현이 옛날 북해의 땅에 속하였고 백이가 북해에서 은거하였다고 하므로, 이곳에 은거하였던 백이의 정신을 기려서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명대 청주부 창락현의 이제묘는 백이와 숙제의 고향도 아니고 백이와 숙제가 죽은 수양산과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지만 백이가 은거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이제묘를 세우고 그들의 청정한 기풍을 기리고 있었다. 산동 지방은 옛 魯나라와 齊나라의 땅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유교 문화의 기풍이 지역 문화의 저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만큼 淸聖으로 존숭되던 백이와 숙제의 소소한 유적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것이다.

청대의 지방지에는 청주부 창락현 이제묘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중수되거나 수리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묘에 대한 기억도 모호해졌는지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제묘"와 "고산묘"를 백이와 숙제의 사당 두 채로 이해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

39) 嘉靖《靑州府志》卷之六, "昌樂城東十里爲孤山, 峯巒峭扳, 高揷雲霄, 有穴曰龍洞。舊有夷齊祠, 額曰昭賢, 今改爲聖淸。以孟氏言夷居北海之濱, 因立廟云。自秦漢已有此祠, 旁有首陽山。按首陽在河東薄坂, 又今末平、灤州屬孤竹地, 且在海濱矣。孤山祀伯夷, 殆附會昌樂爲北海地, 云併祀叔齊, 尤爲無謂, 豈以孤山爲孤竹山邪? 宋崇寧有封叔齊牒文, 國朝御史熊榮撰招賢祠記, 尙書趙鑑有崇正記, 邑人劉三畏有孤山義田記, 俱見縣志。" 明嘉靖刻本.

www.kci.go.kr

였다. 아래에서 乾隆《大淸一統志》에 수록된 이제묘 관련 기록을 살펴보자.

> 이제묘는 濰縣 孤山에 있고, 백이와 숙제의 두 사당이 있다. 元時에 封爵한 碑刻이 존재한다. 縣志의 孤山夷齊廟를 고찰해보니, 백이가 紂를 피해 北海의 물가에 머물렀으므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統志도 그 기록을 따르고 있다.《漢書》〈地理志〉를 보면, 夷齊의 孤竹國은 遼西 令吏縣에 있었으니, 지금은 永平에 속하며 東萊에 있을 수 없다. 지금 고을에 역시 孤山이 있으므로 후대 사람들이 명칭 때문에 억지로 이야기를 맞춘 것일 뿐이다.(후략).[40]

이처럼 건륭《대청일통지》에서는 고산 위에 백이와 숙제의 사당이 두 채가 있다고 하였고, 강희 연간의《대청일통지》와 가경 연간의《대청일통지》에서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41] 또한 청대 후기의 지방지에서는 사당을 두 개로 나누어 "夷齊廟"와 "孤山廟" 혹은 "淸聖廟"와 "孤山廟"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 이제묘는 (昌樂)縣 동쪽 10리 지역의 孤山 위에 있다. 은나라의 백이와 숙제를 제사 지내는데, 처음 건립한 시기는 고찰할 수 없다. 송대에는 昭賢이라고 사액을 받았고, 원대에는 淸聖이라고 사액을 받았다. 서쪽편에는 龍神廟가 있는데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번번이 응하였다. 송대에 廣靈侯에 봉해졌으며 원대에 孚澤廣靈侯로 가수되었다. (중략) 縣志에 元 王登이 사당을 중수한 碑記가 수록되었는데, 제목은 〈北海孤山廟〉이다. 그 문장은 주로 백이와 숙제를 논하고 덧붙여 龍神을 언급하면서 다만 孤山之廟라고 말하였을 따름이다. 옛 府志에서는 사당을 두 개로 나누어 夷齊廟와 孤山廟라고 하였다. 縣志에서도 역시 나누어 두 개로 기록하면서, 淸聖廟와 孤山廟라고 하였다. 孤山廟의 아래에 또 龍王廟라고 지칭했으니, 孤山之廟는 龍神을 위한 것이라고 본 까닭이다. 사당을 나눈 것이 옳지 않고, 孤山의 신령이 龍神에 속한다고 본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지금 왕등의 문장을 인용하여 바로잡고자 하니, 뒷부분에 그 문장을 수록하였다.(후략)[42]

위에서 인용한 咸豐《靑州府志》에서는 고산 이제묘의 연혁과 변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40) 乾隆《大淸一統志》卷一百三十八, "夷齊廟, 在濰縣孤山, 有伯夷、叔齊二廟, 元時封爵碑刻存焉。按縣志孤山夷齊廟云：伯夷避紂居北海之濱, 後人因祀之。統志因之。考漢地理志, 夷齊孤竹在遼西令吏縣, 今屬永平, 不應在東萊也。今郡亦有孤山, 後人或因此而附會其說耳。(후략)" 淸文淵閣四庫全書本.

41) 康熙《大淸一統志》卷一百七, "夷齊廟, 在濰縣孤山。有伯夷、叔齊二廟, " 淸乾隆九年(1744)武英殿刻本. 嘉慶《大淸一統志・萊州府二》, "夷齊廟, 在濰縣南孤山。有伯夷、叔齊二廟, " 民國二十三年上海商務印書館四部叢刊續編景舊鈔本.

42) 咸豐《靑州府志》卷二十六, "夷齊廟, 在（昌樂）縣東十里孤山上, 祀殷伯夷、叔齊, 建始無考。宋賜額曰昭賢, 元賜額曰淸聖。西偏有龍神廟, 禱雨輒應。宋封廣靈侯, 元加孚澤廣靈侯。(중략) 縣志載元王登重脩廟碑記, 題曰北海孤山廟, 其文專主夷、齊而附及龍神, 猶孤山之廟云耳。舊志岐而爲二, 曰夷齊廟, 曰孤山廟。縣志亦兩載之, 曰淸聖廟, 曰孤山廟。孤山廟下又曰龍王廟, 是以孤山之廟爲龍神矣。分載非, 以孤山屬龍神尤非。今援登文正之, 而載其文於後。(후략)" 淸咸豐九年刻本.

www.kci.go.kr

한편, 이제묘와 용신묘는 모두 “孤山之廟”일 뿐 나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元 王登의 〈重修孤山廟碑記〉의 문장을 읽어보면 “孤山之廟”를 언급하면서 “夷齊廟” 옆에 “龍神廟”가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였고 또 明 朱木이 “龍神廟”를 중수하면서 “孤山廟”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므로, 명대에 “이제묘”와 “고산묘”(“용신묘”)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 듯하다. 다만 “용신묘”의 명칭을 “고산묘”로 바꾸면서 이전에 “이제묘”를 가리키던 명칭과 혼동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 창락현의 연혁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縣志와 역대 지방지 등을 살펴보건대 백이와 숙제를 함께 배향하는 사당과 고산의 신령을 제사 지내는 두 채의 사당이 각각 있었는데, 명칭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렸다.

청대 말기에 고산의 이제묘를 수리한 기록은 1886년 膠縣 사람 柯劭忞이[43] 지은 〈重修孤山廟碑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말 민국초기의 학자였던 가조민은 1886년에 이제묘가 수리된 과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이제묘가 거쳐 왔던 연혁을 간략하게 총괄하였다.

> 孤山은 옛날부터 이제묘가 있었다. 元 至正 9년(1349)의 碑에는 “秦, 漢, 魏, 晉 이래로 六朝와 唐, 隋나라를 거치는 동안에 몇 번이나 허물어지고 몇 번이나 중건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別殿으로 龍神祠가 있으며 孚澤廣陵侯의 명칭을 받았다. 가뭄이 든 해에 기도를 하면 늘 영험하게 응답하였고, 항상 사방에 비를 뿌리는 은덕을 내렸다.”라고 한다. 《續漢書》 〈五行志〉에는 蔡邕의 〈夷齊廟碑〉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熹平五年(漢靈帝, 176), 천하에 큰 가뭄이 들어 여러 명산에서 기도를 올렸다. 處士 平原 蘇騰이 꿈에 수양산에 올라갔는데 神馬가 나타나 그를 태우고 길을 가주었다. 소등은 다음날 깨어나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꿈에 수양산에 오른 일을 위에 고하니, 조서를 내려 사자로 하여금 산의 사당에 올라가게 하였고, 하늘이 곧 비를 내렸다.” 이제묘에 祈雨를 하면 영험하다는 것이 예로부터 분명히 증명된 셈이다. 《禮記》에 말하길, “백성에게 功德이 있는 사람을 제사지낸다.”라고 하였다. 淸聖의 은혜가 고루 백성에게 끼치니 廣陵侯도 함께 祀典에 합쳐지게 되었다. 首陽과 北海는 모두 淸聖이 은거하던 곳이니, 그곳의 신령이 평안한 한 해를 내려주고 사내와 여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 丙戌年(1886)에 사당을 다시 수리하고 복원하였고 道士 아무개씨가 나에게 문장을 청하였으므로 그 일을 기록해주었다. 나도 淸聖이 感應하는 신비한 일을 고증하여 바르고 옳은 일을 새겨 전하고, 또한 신령을 보내고 맞이하는 곡을 지어 보답하고자 한다. (후략)[44]

43) 柯劭忞(1848－1933)의 字는 仲勉 혹은 鳳孫, 鳳苏, 鳳笙, 奉生 등을 쓰며 만년의 호는 蓼園, 室名은 歲寒閣이다. 山東省 膠州市 大同村 사람으로 淸末民國 시기 관리이며 근대 학자였다. 柯劭忞은 관료 문인 가문 출신으로 淸德宗 光緖 12년(1886) 進士가 되어 翰林院編修, 侍讀, 侍講, 典礼院學士, 資政院議員 등을 지내었다. 宣統2년(1910)부터 宣統3년(1911)까지 京師大學堂 總監督을 지내었다. 淸朝가 멸망하고 民國이 성립한 후에 청나라의 은택을 잊지 못하고 겸손하게 淸遺老를 자임하여 살았다. 일찍이 혼자 힘으로 《新元史》를 편찬하였고, 日本東京帝國大學의 文學博士學位를 수여받았다. 1914년에 《淸史稿》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고, 淸史館館長 趙爾巽이 죽은 후에 대리 館長, 總纂 등을 역임하였다. 후에 輔仁大學 董事會 董事를 맡았다. 1933년 北京에서 병사하였다.

44) (靑) 柯劭忞, 〈重修孤山廟碑記〉, “孤山舊有夷齊廟, 元至正九年碑云：自秦、漢、魏、晉而下, 六朝、唐、隋

www.kci.go.kr

이 글에 따르면 고산의 이제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秦, 漢, 魏, 晉 이래로 六朝와 隋, 唐나라를 거치는 동안” 계속 존재했으며 여러 차례의 수리와 중건을 거치면서 유지되어왔다. 그리고 蔡邕의 〈夷齊廟碑〉에서 永平府의 首陽山이 비를 내리는 영험을 보였던 것을 기록하면서, 백이가 은거하던 北海 지역에 있는 孤山에도 “別殿으로 龍神祠가 있는데, 孚澤廣陵侯의 존칭을 받았다. 가뭄이 든 해에 기도를 하면 늘 영험하게 응답하였고, 항상 사방에 비를 뿌리는 은덕을 내렸다”라고 부연하여 고산에는 이제묘와 함께 “용신사”(용신묘)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민국 시기 지방지에서는 고산에 있는 “이제묘”와 “고산신묘”라는 명칭의 두 사당을 각각 언급하고 있다. 즉 民國 7년(1918)의《山東通志》와[45] 民國 23년(1934)의《昌樂縣續志》에서 고산에 있는 사당인 “고산묘”로 “이제묘”와 “고산신묘” 두 곳을 나누어서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창락현속지》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孤山廟는 옛 지방지의 祀典에 실려있다. 고산의 위에는 “夷齊廟”가 건립되었는데 은나라 백이와 숙제를 제사 지내는 곳이다. 傳에 “백이가 紂王을 피하여 北海의 물가에 은거하였다”라고 했는데, 곧 이곳이다. 宋나라 때 昭賢이라고 사액되었고 元나라 때는 淸聖이라고 사액되었으니 역시 淸聖祠라고도 하였다. “孤山神廟”는 宋나라 때 廣陵侯로 봉해졌고 元나라 때는 孚澤廣陵侯로 봉해졌다.(중략) 매해 중양절마다 문인들과 시인들이 유람하여 남긴 시문이 가득하다. 지금 용마루가 구부러지고 기와가 무너져 비바람을 가릴 수 없게 되었으니 수리하고 살피지 못한지 얼마나 되었는가. 다른 方山廟 같은 것은 언제 지어졌는지 고찰할 길이 없다.[46]

앞서 언급된 여러 方志의 기록을 종합하면,[47] 조선 사신이 연행록에 기재하였던 이제묘,

之間，不知幾凌遲，幾增修矣。又云：別殿有龍神祠，贈孚澤廣陵侯。遇歲旱，屢禱屢應，四方恆以雨德焉。考續漢書五行志引蔡邕夷齊廟碑云：熹平五年，天下大旱，禱諸名山。處士平原蘇騰夢陟首陽，有神馬之使載道。明覺而思之，以夢陟上聞，詔使者登山升祠，天尋雨。是夷齊廟禱雨之靈，古有明徵。禮云：有功德於民，則祀之。淸聖之惠被斯民，固與廣陵侯同有合於祀典者也。首陽、北海俱淸聖所居，宜其降康年而穀我士女也。歲丙戌，廟重加修葺，道士某請余爲文，以記其事。余因考淸聖感應之靈，勒諸貞珉，又並爲迎神送神之曲，以侑神焉。(후략)” 民國《昌樂縣續志》卷十六，民國二十三年(1934)鉛印本.

45) 民國《山東通志》卷三十八, “夷齊廟”는 （昌樂縣）城 동쪽 孤山 위에 있다. 殷나라의 伯夷、叔齊를 제사지내는 곳이다. 전하는 말에, 伯夷가 紂를 피해 北海의 물가에 머물렀다고 한 곳이 곧 여기라고 한다. 宋나라 때 昭賢이라고 사액하였고, 元나라 때는 淸聖이라고 사액하였으므로 淸聖祠라고도 불렀다. “孤山神祠”는 城 동쪽 10리에 있는데, 元나라 때 孚澤廣靈侯로 봉해졌다. (夷齊廟，在（昌樂縣）城東孤山上，祀殷伯夷、叔齊。傳曰伯夷避紂居北海之濱，卽此。宋賜額曰昭賢，元賜額曰淸聖，亦曰淸聖祠。孤山神祠，在城東十里。元封孚澤廣靈侯。)” 民國七年(1918)鉛印本.

46) 民國《昌樂縣續志》卷五, “孤山廟，前志載在祀典，規制較釜甑爲狹。上建夷齊廟，祀殷伯夷、叔齊。傳曰：伯夷避紂，居北海之濱。卽此。宋賜額曰昭賢，元賜額曰淸聖，亦曰淸聖祠。孤山神廟，宋封廣陵侯，元封孚澤廣陵侯，(중략) 每逢重九，文人騷客遊履篇滿。今棟撓瓦摧，風雨不蔽，修復未審何時。他如方山廟，創建失考。” 民國二十三年(1934)鉛印本.

www.kci.go.kr

즉 “夷齊祠”, “伯夷廟”, “孤山夷齊廟”의 명칭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宋) 昭賢廟 → (元) 聖清廟, 北海孤山廟 → (明 天順 年間) 伯夷廟, 叔齊廟 → (明 嘉靖) 昭賢廟, 夷齊廟, 昭賢祠 → (清 康熙) 昭賢廟, 夷齊廟 → (清 嘉慶) 清聖廟 → (清 咸豐) 夷齊廟 → (民國) 夷齊廟, 孤山廟, 清聖祠 → (今) 昭賢廟, 孤山廟(俗稱).

<그림 4> 복구하기 전의 昭賢廟

<그림 5> 복구한 후 지금의 昭賢廟
(지금은 속칭 孤山廟라고 한다)

이후에 夷齊廟(昭賢祠)는 清末, 民國 시기를 지나면서 무너지고 다시 수리되는 과정을 거치며 세월의 흐름을 견뎌내었다. 이와 같이 오랜 연혁을 가진 청주부 창락현의 이제묘는 현재에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 2017-2018년에 昌樂縣은 옛 유적의 원형을 따라서 다시금 이제묘를 수리하고 복원하여 “昭賢廟”를 중수하였다. “소현묘”가 위치한 孤山은 明末 昌樂縣 孤山鋪 지역에 있었으며, 明末 昌樂縣 孤山鋪는 지금의 昌樂縣 朱劉街道 十里堡村이다.[48]

47) 嘉靖《山東通志》卷18《祠祀》, 明嘉靖刻本, 35쪽a ; 康熙《山東通志》卷20《祠祀》, 清康熙四十一年刻本, 13쪽b ; 咸豐《青州府志》卷26《營建考二》, 清咸豐九年刻本, 25쪽a-26쪽a ; 民國《山東通志》卷38《疆域志第三》, 民國七年鉛印本, 48쪽a ; 嘉靖《昌樂縣志》卷2《祀典志》, 明嘉靖刻本 ; 嘉慶《昌樂縣志》卷5《古跡考》, 清嘉慶十四年刻本, 3쪽a-4쪽a ; 山東省昌樂縣史志編纂委員會編 :《昌樂縣志》, 山東人民出版社1992年版, 528쪽.

48) 관련 지방지의 기록과 濰坊市 昌樂縣 地方史志辦公室 副主任 趙守誠(男, 84歲)을 인터뷰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明末 昌樂 孤山鋪는 지금의 昌樂縣 朱劉街道 十里堡村이다. 明 十里堡村은 朱劉店 서쪽 3.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혹자는 송대에 건립된 마을이라고 한다. 이웃한 고을인 青州 - 濰州(明末 濰縣) 사이의 驛道를 조사해보면, 이 곳에 역참이 세워져 있었다. 明 嘉靖 연간에 孤山鋪라고 칭해졌으며, 昌樂縣 在城鄉에 속하였다. 清 康熙 60년(1721), 孤山鋪, 十里鋪라고 칭해졌고, 昌樂縣 青惠鄉에 속하였다. 清 嘉慶 14년(1809), 역시 孤山鋪, 十里鋪라고 칭해졌고, 昌樂縣 尖塚廠에 속하였다. 民國 23년(1934)에는 十里堡라고 칭해졌고, 昌樂縣 第一區 風陰鄉에 속하였다. 1950년에 昌樂縣 一區 城關區에 속하였고, 1955년부터 1958년까지 昌樂縣 城關鎭에 속하였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昌樂縣 東風人民公社에 속하였고, 1962년부터 1984년까지 昌樂縣 城關公社에 속하였다. 1984년부터 2005년까지 昌樂縣 昌樂鎭에 속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금까지 十里堡村이라고 칭해지고 昌樂縣 朱劉街道에 속해있다. 嘉靖《青州府志》卷11《驛傳》, 明嘉靖刻本, 42쪽a ; 康熙《青州府志》卷6《驛傳》, 清康熙六十年刻本, 8쪽a ; 康熙《昌樂縣志》卷首圖《境圖》, 清康熙十一年刻本, 13쪽b ; 嘉慶《昌樂縣志》卷8《田賦考》, 清嘉慶十四年刻本, 14쪽b ; 民國《昌樂縣續志》卷2《疆域志》, 民國二十三年鉛印本, 12쪽a ; 山東省昌樂縣史志編纂委員會編 :《昌樂縣志》, 山東人民出版社1992年版,

www.kci.go.kr

4. 조선 사신의 눈에 비친 山東 靑州府 夷齊廟

이제묘는 백이와 숙제와 관련된 중국내 여러 유적지에 세워져 있었고, 옛 중국의 문인들은 이제묘를 방문하여 백이와 숙제를 기리는 한편 그들의 사적에 대한 감상을 여러 편의 시와 문장으로 남겼다. 해당 지역의 지방지에 수록된 이제묘와 관련된 시와 문장들은 그 공간이 가진 문화적 의미를 보여준다. 산동 청주부 이제묘에 대해 옛 중국 문인들이 남긴 몇 편의 시와 조선 사신들이 남긴 시편들을 통해 청주부 이제묘가 가진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명대 嘉靖 연간의 문인인 劉廷錫이[49] 남긴 〈孤山懷古〉라는 시이다.

〈孤山懷古〉[50] 〈孤山에서 옛 일을 회상하다〉

奇峰矗矗水漫漫, 古廟雲深海上看.
높은 봉우리 겹겹이 솟아있고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는데
옛 사당은 깊은 운무 위로 불쑥 드러나 보이네.
孤竹風吹天地久, 首陽氣薄日星寒.
고죽국의 풍취가 불어오니 오랜 세월 이어지고
수양산의 기운은 담박하여 한결같이 서늘하네.
嵐侵老樹龍髯瘦, 苔覆遺碑鳥篆殘.
산 속 아지랑이는 늙은 고목에 스며 솔잎 더욱 마르게 하고
옛 석비는 온통 푸른 이끼에 덮혀 새겨진 글씨 희미하게 남아있네
自合采薇供俎豆, 無煩簫鼓奠盤餐.
당연한 듯이 고사리 뜯어 나물을 제기에 올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음악을 연주하며 음식 차려 제사를 올린다네

劉廷錫은 유현이 고향이었으므로 유현에서 가까운 고산을 방문하여 이제묘를 둘러볼 수 있었고 음력 2월 봄과 음력 8월 가을에 백이와 숙제의 사당에서 행해지는 제사에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 시에 따르면 이제묘는 고산의 위에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백이와 숙제의 늠름한 절개와 기상을 전하였다. 사당의 주위에는 이파리마저 말라가는 오래된 소나무들

70-75쪽 ; 昌樂縣地方史志編纂委員會編 : 《昌樂縣志》中華書局2008年版, 38-41쪽 등 참조.

49) 劉廷錫은 명대 嘉靖 연간에 생존했던 관료 겸 문인으로서, 자는 君榮이고 호는 塔山이며 濰縣 사람이다. 嘉靖 元年(1522) 鄕試에 합격한 후에 保定府推官에 임명되었고 후에 戶部主事에 발탁된 후 戶部員外郎中 등을 역임하였으며 兩淮鹽運使를 지냈다. 청렴한 관리로서 칭송을 받았으며 퇴임한 후 고향에 돌아와 縣 동남쪽 40리에 있는 塔山(지금의 靈山) 아래에서 지냈으므로 산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 明 神宗 萬曆 元年(1573)에 《濰縣志》 10권을 편찬하였는데, 濰縣을 기록한 최초의 지방지이다.

50) 乾隆《濰縣志》卷6《藝文志》, 淸乾隆二十五年刊本, 26쪽b.

www.kci.go.kr

과 푸른 이끼에 덮인 석비들이 서서 유구한 사당의 역사를 보여주고, 사당에서는 때에 맞추어 고사리를 캐어 나물을 만들어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백이와 숙제의 사적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었다. 이 시는 당시에 청주부 문인들이 제사에 배석하여 백이와 숙제가 지키고자 했던 올곧은 節義와 忠君의 정신을 마음에 새겼음을 보여준다.

<그림 6> 夷齊廟 (가운데 오른쪽 위)

그림 6은 청대 康熙 연간에 창락현의 지방지에 실린 것으로, "濰縣八景"중의 하나로 알려진 "孤山晚照"를 표현한 그림이다.[51] 그림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창락현으로부터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孤山이며 그 위에 보이는 작은 사당이 바로 夷齊廟를 묘사한 것이다. 이제묘는 창락현에서 십리 정도 떨어진 고산 위에 있었으니, 그림과 같이 창락현에서 산 위에 있는 이제묘를 조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의 시는 민국 시기 지방지에 수록된 시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문인이 청성묘, 즉 이제묘를 알현하고 그곳에서 느낀 감상을 적은 것이다.

〈謁清聖廟〉[52] 〈清聖廟를 알현하다〉
(在昌樂城東孤山上, 城東十里堡, 卽其待清處)
창락현성 동쪽 고산 정상에 있다. 성 동쪽 십리보에 있으니, 즉 백이와 숙제가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곳이다.)

殷季亂無象, 은나라 말기 常道가 어지러이 무너져
遁跡北海濱. 속세를 피해 북해의 바닷가에 숨었네.
結廬在人境, 사람들이 사는 마을 교외에 초가를 지었으니
南與孤山鄰. 남으로 고산 자락에 맞닿았네.
以待天下清, 천하가 다시 맑아지기를 기다렸으니
非終作逸民. 종신토록 은자로 살고자 한 것은 아니었기에
周文興養老, 주 문왕이 노인을 잘 봉양한다는 소문을 듣고
西歸乃就邠. 문왕에게 귀순하려 서쪽 빈 지방으로 갔네.
後値武代紂, 후에 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는 것을 보고는
采薇示不臣. 〈채미가〉를 지어 그의 신하가 되지 않을 뜻을 드러냈고

51) 康熙《濰縣志》卷首圖《孤山晚照》, 清康熙十一年刻本, 11쪽a.
52) 民國《昌樂縣續志》卷16《藝文志》, 民國二十三年鉛印本, 59쪽b-60쪽a.

www.kci.go.kr

杭餓弗屈節, 주나라 곡식을 거절하여 굶주리면서 절개를 굽히지 않아
首陽終其身. 수양산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네.
考古至營邱, 옛 전적을 살펴 강태공이 봉해진 영구성에 이르니
雪泥未就淪. 강태공의 유풍이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았고
指示待淸處, 백이, 숙제가 맑은 세상을 기다렸던 곳을 손으로 가리키니
遺愛尙在人. 백이, 숙제를 사모하는 마음 아직도 백성 사이에 남아있네.
有廟建山巓, 고산의 정상에 사당을 지어
歲時祀爲神. 시절에 맞추어 백이와 숙제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구나.
有碑建廟側, 사당 옆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石刻苔花皴. 석비에 새긴 글씨에는 이끼가 화려하게 피어 금이 생겼네.
籲嗟乎！ 오호라!
易代之際仕與隱, 왕조가 바뀔 때 누군가는 벼슬에 나가고 누군가는 은거함은
獨行其是不同倫. 다만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매 도리가 같지 않을 뿐이라.
伯夷太公稱二老, 백이와 강태공 모두 성인이라 일컬어지니
一進一退各屈伸. 각각 벼슬하고 은거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처신한 것이다.

이 시는 청성묘에서 모시고 있는 백이의 사적을 시로 표현하였다. 앞부분에서는 백이가 은나라 주왕의 폭정을 피해 북해의 물가에서 은둔하면서 세상이 다시 맑고 평온해지기를 기다렸는데 그곳이 고산 북쪽의 땅이었음을 말하였고, 주 무왕이 은 주왕을 정벌하자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음으로써 은나라에 대한 충의와 절개를 지켰음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강태공이 제후로 봉해져 제나라를 다스렸던 營邱[53] 땅의 유적이 남아 있음을 떠올렸으며 강태공과 백이가 모두 망해가는 은나라의 백성이었으나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음을 언급하였다. 곧 강태공은 무도한 은나라를 버리고 새로이 주나라를 섬겨 강성하게 만들고 마침내 제나라의 제후가 되었으나, 백이는 끝까지 은나라의 백성이기를 고집하며 충정을 다하여 절명한 것이다.

시인은 그들의 상반된 행적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리를 행하였기 때문이며 다만 그 도리가 같지는 않았을 따름이라고 풀이하였다. 무명의 시인은 청나라의 멸망과 새로운 민국의 시작을 목도하면서 왕조가 바뀌는 시기에 백성 된 자가 겪게 되는 가치와 이상의 혼란을 직접 느꼈을지 모른다. 시인은 벼슬자리에 나아갔던 강태공이나 혹은 벼슬을 거절하고 절의를 지켰던 백이, 숙제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음을 찬탄하며, 그들의 삶의 궤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현하였다.

53) 營丘는 옛 지명인데, 齊나라가 처음에 都城으로 삼았던 곳이다. 姜尙이 齊나라에 봉해진 후 營丘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전한다.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 어려운데, 역대로 臨淄 營丘, 昌樂 營丘(원래는 馬宋鎭), 혹은 壽光縣 廣陵 小營(江陰侯 吳良이 駐軍한 장소)이라고 하는 등의 논쟁이 있었다.

www.kci.go.kr

이와 같이 청주부 이제묘는 산동 청주부의 문인들에게 '淸聖'으로 불렸던 백이와 숙제의 충의와 절개를 되새기며 유교의 가르침을 체화하고 체득하는 문화 공간이 되었고, 유가 문화의 본산으로서 산동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조선 사신들 역시 명나라 수도를 왕복하는 긴박한 사행 일정 중에도 백이와 숙제의 유적이 있음을 표시하는 패문과 석비,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고산 위로 바라보이는 이제묘를 직접 목도하면서 신선한 감동과 감흥을 느꼈을 것이다. 연행록에 청주부 이제묘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조선 사신 중에 이경전, 이민성, 신열도 세 사람이 남긴 시가 전해지고 있다.

먼저 1623년 奏請使의 정사였던 李慶全은 백이와 숙제에 관하여 세 편의 詩作을 남겼는데, 그중 한 편은 사행길에서 만나게 된 백이와 숙제의 유적에 대해 적은 것이다. 먼저 이경전이 백이와 숙제에 관한 감흥을 적은 〈夷齊 二首〉의 시를 보자.

〈夷齊〉二首 其一[54] 〈백이와 숙제〉 2수 중 제1수

飄然委國皎無塵, 獨把丹誠傲聖人.
표연히 나라를 저버리고 떠났으니 깨끗한 절개에 티끌 한 점 없고,
홀로 붉디붉은 마음과 정성을 지녀 성인에게 부끄럽지 않네.
薇蕨本無延我壽, 一生惟解爲彝倫.
고사리는 본래 나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일생 동안 떳떳한 윤리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네.

이 시는 주로 孤竹國의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속세를 피해 멀리 北海로 피하여 갔던 백이와 숙제 두 사람의 깨끗한 절개와 충심을 서술하고 그들의 고상한 절의는 여러 聖賢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나물에 의존한 것은 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윤리와 강상의 도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夷齊 二首〉 중의 두 번째 수는《果菴先生文集》뿐만 아니라《石樓先祖朝天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앞서 서술한 1623년 사신단의 정사 이경전과 서장관 이민성의 연행록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이경전이 이제묘를 지나며 느낀 감흥을 시편으로 남긴 시기는 응당 귀국길인 1624년 3월 16일경일 것이다.

54) 李耆 編著, 韓山李氏果菴集刊行委員會 編《果菴先生文集》, 韓國現代文化社1998年版, 3쪽.

www.kci.go.kr

〈夷齊〉 二首 其二[55] 〈백이와 숙제〉 2수 중 제2수

白髮棲遑避虐辛, 時來不作武王臣.[56]
성성한 백발로 불안한 마음 가득 안고 포악한 주왕을 피하여 왔으니
때가 왔다고 해도 武王의 신하가 되지 않았네.
不將節義扶倫紀, 爭得周家八百春.
(주 무왕은) 節義을 주장하거나 도덕 윤리에 얽매이지 않고
싸워서 周나라의 8백년 역사를 얻었다네.

이 시의 앞 두 구는 백이와 숙제가 殷 紂王의 폭정을 피하여 北海의 물가에서 은거하였던 일과 周 武王이 자신의 부친인 주 문왕을 장사 지내지도 않고 紂王을 정벌하러 출정하자 백이와 숙제가 周 武王의 신하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뒤의 두 구에서는 節操와 義行을 내세우거나 人倫에 얽매이지 않고 싸웠기에 周나라가 周 文王부터 周 赧王까지 약 8백년 간 지속되었음을 이야기하였으니, 주 무왕의 행적의 정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이 〈夷齊〉 2수의 제1수에서 백이와 숙제 두 사람의 節義를 칭송하고 인륜과 常道의 중요성을 긍정하는 한편, 제2수에서 周 武王의 周왕조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일견 모순되는 점이 있는 듯하다.

이 시의 내용은 그가 사행길에 오른 이유나 그의 경력과 연관 지어 생각해봄직 하다. 石樓 李慶全은 東人의 태두였던 영의정 李山海의 아들로 태어나 후에 관직에 진출하여 자연스럽게 東人의 일원이 되었으며, 광해군을 지지한 부친 이산해를 따라 大北派의 중진으로 성장했다.[57] 광해군 시기에 대북파가 정치적으로 득세하였기에 이경전은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1609년 부친 이산해가 죽고 대북파의 또 다른 영수였던 李爾瞻과 소원해지면서 그는 대북파에서 멀어져 정치적으로 南人들과 가까워졌다. 이후에 1623년 인조가 반정을 감행하여 왕위에 오르며 광해군이 실각하였고, 정치적 실권을 잃은 북인들 또한 몰락하여 西人

55) 이 시는 《果菴先生文集》과 《石樓先祖朝天錄》에 모두 수록되었다. 《果菴先生文集》의 《夷齊二首》 중 제2수가 이 시인데, 《石樓先祖朝天錄》 중에는 한 수만 수록되었고 제목은 《夷齊》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본서에서는 "其二"로 바꾸었다.

56) 《石樓先祖朝天錄》와 《果菴先生文集》의 원문이 조금 다른데, 《石樓先祖朝天錄》의 원문을 따랐다. (朝鮮) 李耒著, [韓國] 韓山李氏果菴集刊行委員會編 《果菴先生文集》, 韓國現代文化社1998年版, 3쪽 참고.

57) 이경전의 부친인 영의정 이산해(李山海, 1539-1609)는 東人(기호학파)의 우두머리였다. 당시 西人이었던 좌의정 정철(鄭澈, 1536-1593)이 1591년 광해군을 세자로 천거하려다 선조의 미움을 산 일을 계기로 서인들에 대한 유혈숙청이 단행되었고 동인이 정권을 쥐었다. 동인은 정철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과격파인 이산해가 주도하는 北人과 귀양만 보내자는 온건파인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주도하는 南人으로 다시 분당하였다. 이후 北人은 1599년 홍여순(洪汝諄)을 대사헌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이산해, 이이첨(李爾瞻, 1560-1623) 등이 이끄는 大北과 남이공(南以恭, 1565-1640) 등이 이끄는 小北으로 다시 분당하였다. 광해군을 옹립한 대북파 관료들은 광해군 시대에 최대 당파가 되어 조정에서 권력을 누렸으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실각하자 대북 세력은 몰락하고 소북파는 일부가 서인과 남인에 흡수되었다.

www.kci.go.kr

들에 의해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경전은 당시 남인들과 어울렸으므로 西人의 大北派에 대한 숙청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경전은 인조반정 이후 위험해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인조의 冊封奏請使를 자청하였고 위험천만한 해로 사행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인조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이경전은 선조 때 출사하여 북인이 지지한 광해군과 서인이 지지한 인조를 연이어 섬기면서 실각하지 않고 벼슬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에서 광해군을 殷나라 紂王에, 인조를 周나라 武王에 비유하였다고 본다면, 폭군이었을지언정 은나라 주왕에 충절을 다했던 백이와 숙제의 의로운 행동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나라의 폭정을 종식하고 주나라를 세움으로써 오랫동안 치세를 누리게 한 주 무왕을 지지하는, 다소 복잡하고 모순적인 심경이 엿보인다. 이렇게 이경전이 〈夷齊〉 제 2수의 시편 말미에서 백이, 숙제의 절의만을 찬양하지 않고 주 무왕의 주나라 건립의 당위성을 함께 강조한 것은 그의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58]

이밖에 이경전이 백이에 대해 지은 시를 살펴보면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伯夷〉[59] 〈백이〉

典禮無逾天地人, 從來大事在精禋.
법도와 예절은 하늘과 땅, 사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옛날부터 큰 일이 있으면 정결한 사당에서 제를 올렸네.
想應揖讓都兪裏, 三百三千總是仁.
서로 응하여 제위를 양도할 때 정성을 다해 묻고 답하니
삼백 가지거나 삼천 가지라도 모두 仁으로써 행하였네.

이 시에서는 주로 백이와 숙제가 왕위를 양보할 때 법도에 따르고 인의를 행한 것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서 백이와 숙제가 서로 왕위를 양보하였던 문제를 다룬 것을 당시 인조반정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조선의 정치 상황에 투영하여 본다면, 이경전이 당시 조선의 혼란한 정치 국면에 대해 느끼고 있던 불만을 은근히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즉 이경전이 〈백이〉 라는 시를 통해 백이와 숙제의 양위가 법도와 예절에 맞았음을 칭송한 것은, 백이의 옛 이야기와는 대조적인 당금 조선의 정치 현실을 은근히 비판한 것일지

58) 西人 세력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재집권하였고, 인조 시기는 西人이 조정을 장악한 시기였다. 인조반정 이후 몰락한 북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성격이나 행적 면에서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 이경전의 경우에도 부친인 이산해의 명망을 등에 업고 간사한 행실을 하였고 처세에 능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선왕조실록』 1645(인조 22) 5월 3일의 기사. 李慶全卒. 慶全, 山海之子也. 爲人詭譎, 挾其父兄, 簸弄朝權. 始與李爾瞻, 同惡相濟, 驟登崇秩. 及爾瞻肆行威福, 乃與相背, 以此反正之初, 得免斥黜. 在散地二十餘年, 詩酒自娛, 儉素自奇, 而與勳臣相善, 取容於世, 至是卒.)

59) 李袤 編著, 韓山李氏果菴集刊行委員會編《果菴先生文集》, 韓國現代文化社 1998年版, 2쪽.

www.kci.go.kr

도 모른다.

이경전과 같은 사신단의 서장관이었던 李民宬은 “伯夷故蹤”을 지나면서 〈過伯夷故跡〉이라는 시를 남겼다. 이 시는 이민성이 1624년 3월 16일에 귀국길에서 보았던 “伯夷故跡”의 유적에 대해 느낀 감흥을 적은 것이다.

〈過伯夷故跡〉[60] 〈伯夷 故跡을 지나다〉

淸聖遺墟野草蕃, 淸風颯爽凜精魂.
淸聖이 머물던 옛 들판에는 들풀이 무성한데
맑은 바람 상쾌하게 불어오니 정신과 영혼이 오싹하다.
西山底處甘周餓, 北海當年避紂昏.
西山[61] 밑에 거하며 周의 곡식을 먹지 않으니 차라리 기뻐하였고
北海에서 당시 어리석고 포악한 紂임금을 피하였다네.
跡混丘陵容或變, 光爭日月獨長存.
흔적이 흐려지고 구릉의 모습도 혹 변하였으나
빛나는 이름은 해와 달과 다투며 홀로 오랫동안 남았네.
營丘一種荒原廟, 立懦千秋特不諼.
營丘[62]에도 똑같이 황량한 들판에 한 채의 사당이 있어
나약한 마음을 북돋아주니 천년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네.

이민성은 이 시의 詩題의 뒤에 自注를 붙여서 “(伯夷故跡)은 昌樂縣 동쪽 15리에 있다[在昌樂縣東十五里]”라고[63] 밝혔다. 이민성은 창락현에서 유현으로 가는 도중에 본 “淸聖遺蹤”의 패방 부근이 모두 시든 풀로 덮여 있는 것을 묘사했다. 이때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마치 백이와 숙제의 혼백이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듯하여 숙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비록 孤山의 형상은 길고긴 세월 중에 변하고 달라졌지만 백이와 숙제 두 사람의 이름은 긴 역사를 이기며 전해 내려 왔다. 창락현의 황량한 벌판에도 영평부와 똑같이 이제묘가 세워져 백이와 숙제의 교화를 전하니, 오래도록 나약한 사람들에게 원대한 뜻을 세우도록 권면한다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다.[64] 이민성이 멀리 이제묘를 바라보며 두

60) (朝鮮) 李民宬, 《敬亭集》卷8 《燕槎唱酬集下》, 서울대 규장각소장본, 23쪽b-24쪽a.

61) 西山은 《史記・伯夷列傳》에서 백이와 숙제가 불렀다는 노래의 구절에서 나왔으니, 즉 首陽山을 가리킨다. “저 西山에 올라 그 고비를 뜯는다.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62) 營丘는 여기서는 昌樂을 가리킨다.

63) (朝鮮) 李民宬, 《敬亭集》卷8《燕槎唱酬集下》, 서울대 규장각소장본, 23쪽b.

64) 《孟子・萬章下》에 “백이의 유풍을 들으니 완악한 사내가 곧은 마음을 갖고 나약한 사람이 뜻을 세우게 된다(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라고 하였다.

www.kci.go.kr

사람의 절개와 고상한 의행을 칭송하는 한편, 이제묘를 건립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오랜 세월 유가의 정신을 학습하면서 살아온 유학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지고 살피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明 天啓 4년(1624)은 이민성이 처음으로 명나라에 갔던 해가 아니었다. 이민성은 일찍이 萬曆 30년(1602)에도 역시 冊封奏請使臣團의 서장관 신분으로[65] 遼東의 육로를 거쳐서 京師로 가는 사행길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萬曆 31년(1603) 정월에 이민성은 永平府[66] 灤河 옆에 있는 夷齊廟를 지나면서 〈謁夷齊廟〉라는 시 한 편을 남겼고,[67] 그 가운데 백이와 숙제의 숭고한 절행을 숭앙하며 추모하는 정을 표현하였다. 이 때문에 이민성은 22년 후에 다시 명나라로 가는 사행길에 올라 "營丘", 즉 창락현을 지나면서 만나게 된 백이의 유적지에 대해, 시구 중에서 "營丘에도 똑같이 황량한 들판에 한 채의 사당이 있으니(營丘一種荒原廟)"라고 서술한 것이다.

이민성이 영평부의 이제묘를 지나면서 지은 시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謁夷齊廟〉[68] 〈夷齊廟를 배알하다〉

恭瞻廟貌灤河傍, 二子至今有耿光.
란하강 곁에 서 있는 '이제묘'를 공경스럽게 바라보니
백이와 숙제의 절개는 지금도 밝게 빛나네.
聞風養老將焉往, 載主伐君非所臧.
문왕이 노인을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귀순하려고 갔으나
무왕이 문왕의 신주를 수레에 싣고 주왕을 정벌하는 행동이 선하지 않으므로
扣馬要爲萬世計, 采薇寧顧一身殃.
(무왕의) 수레를 가로막으니 만세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었고
(무왕이 거절하자) 고사리를 캐어먹으니 어찌 일신에 미칠 화를 돌보았으리.
蒙莊謾騁荒唐辯, 誣道貪名死首陽.
장자는 초 위왕의 초빙을 거절하면서 황당한 변론을 하니

65) (朝鮮) 李民宬《癸亥朝天錄》,《敬亭集》卷14《敬亭先生年譜卷1》, "만력 20년, 임인. 선생의 나이 30세. 10월에 성균관전적겸사헌부감찰로 승진하였다. 왕세자책봉주청사 서장관으로 파견되어 연경에 갔다. 김신원, 장만과 함께 사행하였다.(三十年, 壬寅, 先生三十三歲. ……十月, 升成均館典籍兼司憲府監察, 差王世子冊封奏請使書狀官赴京, 與金公信元, 張公晩, 偕行.)" 서울대 규장각소장본, 3쪽b-4쪽a.

66) 永平府는 明淸 시기 府級 행정구역으로 현재 秦皇島 지역과 唐山 지역을 포함한다. 明朝에 처음 永平府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商나라의 孤竹國은 여러 번 명칭이 바뀌어서, 肥如, 肥子, 平州, 永平路, 盧龍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67) (朝鮮) 李民宬《癸亥朝天錄》,《敬亭集》卷14《敬亭先生年譜卷1》, "만력 31년, 계유. 선생의 나이 34세. 정월에 고죽성에 도착하여 이제묘를 배알하였고, 시를 지었다. (萬曆)三十一年, 癸卯, 先生三十四歲. 正月, 到孤竹城, 謁夷齊廟, 有詩.)" 서울대 규장각소장본, 4쪽a

68) (朝鮮) 李民宬《敬亭集》卷1《詩》, 서울대 규장각소장본, 5쪽b-6쪽a.

www.kci.go.kr

백이와 숙제가 도리를 벗어나 명예를 탐하며 수양산에서 죽었다고 주장하였네.

시에서 란하강 옆에 있는 이제묘를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시는 이민성이 永平府를 지날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30대의 청년이었던 이민성은 사행길에 만난 "이제묘"를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고, 백이와 숙제가 주 무왕을 가로막음으로써 仁義를 바로 세운 것과 주나라를 섬기지 않고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음으로써 충심을 다한 것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남다른 충성심과 절의를 보임으로써 유가의 도덕과 윤리를 비추는 성인으로 길이 남은 백이와 숙제를 흠모하는 마음과 함께, 도가 사상가인 장자가 벼슬을 거절하며 한 말은 황당한 변론이며 백이와 숙제가 명예를 탐하였다는 비판 역시 억울한 모함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어려서부터 유가의 경전을 익히며 유학의 정신을 도야해온 젊은 학자였던 이민성이 백이와 숙제의 사당을 직접 목도하면서 느꼈을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1628년 冬至聖節謝恩使의 서장관이었던 申悅道는 북경행 여정에서 유현 - 창락현을 지나갔던 일을 기록하고, 이제묘에 대한 감상을 한 편의 시로 남겼다.

〈過伯夷廟〉[69] 〈伯夷廟를 지나다〉

當年玉立馬前爭, 萬古綱常日月明.
당시에 옥 같은 풍채로 꼿꼿하게 서서 말 앞에서 간언을 하매
만고에 길이 남을 綱常이 해와 달처럼 밝아졌네.
凜凜淸風猶豎髮, 爲瞻神宇暫停行.
차갑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소스라치듯 머리털이 곤두서니
멀리 신령한 묘당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갈 길을 멈추네.

앞서 신열도의 연행록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는 응당 1628년 10월 12일에 창작되었을 것이다. 이 시 역시 백이와 숙제 두 사람이 일찍이 주 무왕의 말 앞에 막아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하였던 모습을 묘사하며, 백이와 숙제가 만세에 길이 남긴 人倫의 도리는 가히 해와 달과 함께 찬란히 빛날 만하다고 칭송하였다. 문득 시인의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부딪혀 와 닿으니 마치 백이의 꼿꼿하고 청정한 기상인 듯 느껴져 갑자기 오싹하여 머리털이 곤두설 지경이었다. 신열도는 더욱 감개한 마음이 들어 멀리 바라보이는 이제묘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조선 사신들이 지나가는 산동 청주부 유현 - 창락현 구간의 사행길에서는 멀리 고산이 바라보였으니, 고산 위의 이제묘는 백이와 숙제의 유적이면서 동시에 일국을 섬기는 충심과 변하지 않는 절개의 표상으로 나타났다. 은나라가 몰락하고 주나라가 세워지는 혼란한 시대 속

69) (朝鮮) 申悅道,《朝天時聞見事件啓》,《연행록속집》106책, 163쪽.

www.kci.go.kr

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던 백이와 숙제의 모습은, 신열도에게 명나라의 쇠락과 청나라의 흥성이라는 당시의 현실과 교차되면서 자신이 평생 공부하고 숭상하였던 유가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이 명청 교체기 해로사행노선을 따라 청주부의 육로를 지나던 조선 사신들은 고산 위의 이제묘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평생 공부하고 숭상하였던 聖人의 고사가 유적으로 남아 현실에 재현된 경험을 하였고 백이와 숙제의 사당이라는 공간에 구현된 유가의 정신을 체화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었다. 은나라가 몰락하고 주나라가 세워지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던 백이와 숙제를 기리는 이제묘의 공간은 당시 조선의 광해군과 인조의 정권 교체로 격변하던 국내 상황이나 혹은 명나라의 쇠락과 청나라의 흥성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 같은 당시의 현실과 교차되고 투영되는 문화 공간이 되었다.

백이와 숙제의 고사는 왕조의 교체, 군주와 신하의 관계, 이상과 현실의 충돌과 같은 여러 화소가 포함되었기에 고금의 문인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조선의 문인들은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통하여 유가의 정신과 도덕 윤리를 성찰하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은주왕과 주 무왕, 백이와 숙제, 혹은 강태공 등의 인물들에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투영함으로써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70] 명청 교체기의 해로사행노선을 따르던 조선 사신들이 산동 지역 육로에서 만난 청주부 이제묘는 조선 사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 소양,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들과 조응하면서 조선 사신들의 정신세계를 심화하는 문화 공간이 되었다.

5. 나가는 말

명청 교체기에 해로사행길을 이용하여 명나라로 향했던 조선 사신들은 登州府, 萊州府를 거쳐 靑州府로 진입하는 사행 노정 중에 夷齊廟를 지났고 이에 대한 기록과 詩作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명청 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노선을 기록한 연행록 가운데서 청주부 이제묘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보고, 중국 지방지의 텍스트들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청주부 이제묘의 공간의 변천과 함께 현재의 모습을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조선 사신의 시편 속에 그려진 청주부 이

70) 조선 사신들은 주된 사행로였던 육로사행길에서 永平府 夷齊廟를 지나면서 관련한 시를 많이 남겼다. 영평부 이제묘 역시 조선 사신들이 도중에 경유하는 지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 광장이었으므로, 사신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경관을 빌어 감정을 詩文으로 쓰거나 경관에다 자기감정을 융합하였다. 영평부 이제묘를 제재로 하여 쓰인 조선 사신들의 시를 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백이·숙제의 "淸風高義"에 대한 감회를 적었고, 왜란 이후에는 "나라 위한 忠節"과 "春秋義理"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明淸 교체 이후에는 사신들이 백이·숙제의 "고사리를 뜯어 먹은 일"을 따라 하거나, 18세기에 "伯夷와 太公이 둘 다 옳다는 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조선 사신들이 이제묘를 경유할 때의 감회는 당시, 곧 명청 시기 중국의 역사 환경과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및 조선 사회 그 자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楊雨蕾, 〈明淸 시기 永平府 夷齊廟의 변천과 조선 사신의 '백이·숙제 고사'에 대한 인식〉, 179쪽 참조.

www.kci.go.kr

제묘의 문화 공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유현 - 창락현을 지났던 조선 사신들의 기록과 지형물을 종합해보면, 창락현 동쪽 10리 즈음에 백이와 숙제의 유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淸聖遺蹤"이라는 欞門과 "伯夷待淸處"라고 쓰인 石碑, 그리고 "孤山夷齊廟"라고 쓰인 石碑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묘는 창락현 동쪽 10리 거리에 있는 孤山 위에 있었다. 조선 사신들은 창락현 동쪽 경계로 향하는 길에서 백이와 숙제의 유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표지물을 보았고, 백이와 숙제를 제사 지내는 이제묘가 孤山에 있음을 알았지만 일정상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였다.

청주부 창락현의 이제묘의 연혁에 대해 중국의 지방지에 전해지는 문장들을 수집하고 조사한 결과 청주부 이제묘는 秦, 漢 시대 이래로 명대와 청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거치며 계속 존재했으며 여러 차례의 수리와 중건을 거치면서 유지되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산에는 이제묘와 함께 龍神祠가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이제묘는 "이제사", "소현사", "소현묘", "청성사", "청성묘" 등으로 다르게 불렸다. 현재 이제묘는 2017-2018년 중수를 거친 후 "昭賢廟"라고 불리고 있다.

명청 교체기는 再造의 은혜라고 칭송하며 선린관계를 유지하였던 명나라가 몰락해가고 청나라가 강성해지던 시기였으며, 실제로 그러한 외교적 상황 때문에 조선 사신들은 불가피하게 이전의 육로와는 다른 해로를 따라 명나라로 사행을 떠나게 되었다. 조선 사신들은 해로 사행노선의 육로에서 유가 문화의 본산인 산동 지역을 지나고 청주부 창락현에서 이제묘를 보며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떠올렸다. 사행길에서 만난 백이와 숙제의 사당인 이제묘는 조선 사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 소양,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들과 조응하면서 그들의 유가적 소양과 정신세계를 심화하는 문화 공간이 되었다.

www.kci.go.kr

【參考文獻】

(朝鮮) 金德承,《天槎大觀》
(朝鮮) 安璥,《駕海朝天錄》
(朝鮮) 申悅道,《朝天時聞見事件啓》
(朝鮮) 吳允謙,《揪灘東槎朝天日錄》
(朝鮮) 尹暄,《白沙公航海路程日記》
(朝鮮) 李德泂,《朝天錄(一云航海錄)》
(朝鮮) 李民宬,《癸亥朝天錄》
(朝鮮) 全湜,《沙西航海朝天日錄》
(朝鮮) 鄭斗源,《朝天記地圖》
(朝鮮) 趙濈,《燕行錄(一云朝天錄)》
(朝鮮) 洪翼漢,《花浦朝天航海錄》
강혜정, 〈백이, 숙제 고사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한민족문화연구》제34집, 2010.8.
김지현, 〈17세기 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한국문학과 예술》15, 2015
신춘호, 〈명청교체기 해로사행 노정의 인문정보 일고-《朝天記地圖》의 산동지역(등주-덕주) 인문지리 현황을 중심으로〉,《한국고지도연구》8(1), 2016.
王珂, 한종진, 당윤희, 〈朝鮮使臣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登州府 黃山館驛 - 萊州府 朱橋驛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중국학논총》63집, 2019.
王珂, 한종진, 당윤희,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朱橋驛 - 萊州府城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1) — 朱橋驛에서 平利店까지〉,《중국어문논총》92집, 2019.
王珂, 한종진, 당윤희,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朱橋驛 - 萊州府城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2) — 二十里鋪에서 萊州府城까지〉,《중국산문집간》9집, 2019.
王珂, 한종진, 당윤희, 〈조선 사신의 對明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昌邑縣城 - 濰縣城 노정에 대한 인문지리적 고찰〉,《중국문학》106집, 2021.
王珂, 한종진, 당윤희, 〈조선 사신의 해로사행노선 중 山東 萊州府 掖縣 西界 - 昌邑縣 新河鋪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적 고찰〉,《한중언어문화연구》59집, 2021.
왕가, 한종진, 당윤희,《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로의 노선과 지명 재구 및 인문지리학적 고찰. 1: 산동 등주부》, 서울: 역락, 2020.
왕가, 한종진, 당윤희,《명청교체기 대명 해로사행로의 노선과 지명 재구 및 인문지리학적 고찰. 2: 산동 래주부》, 서울: 역락, 2021.
이성형, 〈연행록의 伯夷·叔齊 관련 漢詩 연구-壬亂收拾期를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31집, 2010.8
이성형, 〈《천사대관》과 《대명일통지》 수용양상 고찰 - 산동 육로 구간을 중심으로〉,《한문고전연구》33집, 2016.

www.kci.go.kr

이현식, 〈연암 박지원 문학 속의 백이 이미지 연구〉, 《東方學志》 123집, 2004.
이홍식, 〈조선후기 백이 수용의 한 양상〉, 《한국고전연구》 23집, 2011.
조규익, 《연행 길, 고통의 길, 그러나 깨달음의 길-국문 사행록의 미학》, 서울: 역락, 2004.
金哲・秦亞偉, 〈조선조 문인의 백이·숙제 수용과 인식 연구—연행록 중의 백이・숙제 기록을 중심으로〉, 《當代韓國》, 2014년 제3기.
楊雨蕾, 〈明淸 시기 永平府 夷齊廟의 변천과 조선 사신의 '백이・숙제 고사'에 대한 인식〉, 《한국학논집》 77집, 2019.
王元周, 〈夷齊論과 조선조 후기 정치〉, 《한국연구논총》 25집, 復旦大學 韓國學研究中心主編,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조즙 저, 최강현 역, 《계해수로조천록》, 서울: 신성출판사, 2000.
嘉靖《昌樂縣志》, 明嘉靖刻本
嘉慶《昌樂縣志》, 淸嘉慶十四年刻本
康熙《昌樂縣志》, 淸康熙十一年刻本
民國《昌樂縣續志》, 民國二十三年鉛印本
山東省昌樂縣史志編纂委員會編, 《昌樂縣志》, 齊南: 山東人民出版社, 1992年版
昌樂縣地方史志編纂委員會編, 《昌樂縣誌》, 北京: 中華書局, 2008年版
嘉靖《靑州府志》, 明嘉靖刻本
康熙《靑州府志》, 淸康熙六十年刻本
咸豐《靑州府志》, 淸咸豐九年刻本
嘉靖《山東通志》, 明嘉靖刻本
康熙《山東通志》, 淸康熙四十一年刻本
民國《山東通志》, 民國七年鉛印本
(明)李賢等, 《大明一統志》, 三秦出版社, 1990
(淸)穆彰阿等 纂修, 《(嘉慶)大淸一統志》, 四部叢刊續編景舊鈔本.
(淸)岳浚等. 《(雍正)山東通志》, 四庫全書版.
楊雨蕾, 〈明淸時期朝鮮朝天-燕行路線及其變遷〉, 《歷史地理》 第二十一輯, 2006.
邵双双, 《朝鮮使臣所見的明末山東——以"海路朝天錄"爲中心》, 山東大學碩士論文, 2015.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Yi Qi Shrine of Qingzhou in Shandong on the shipping route of Joseon envoys during the alternation of Ming and Qing Dynasties

Wang, Ke* · Han, Jongjin** · Dang, Yunhui***

Joseon(朝鮮) envoys during the alternation of Ming(明) and Qing(青) Dynasties saw the Yi Qi shrine(夷齊廟) of Changle County(昌樂縣) in Qingzhou Fu(青州府) and left some records and poetry. We considered the changes of the Yi Qi shrine of Changle County in Qingzhou Fu by analyzing Chinese related documents, futhermore considered the cultural space where was described in the poetry of the Joseon envoys. The Joseon envoys who passed through Wei County(濰縣) - Changle County(昌樂縣) saw that there was a Yi Qi shrine on the Gu Mountain(孤山) about 4km east of Changle County. Yi Qi shrine of Changle County in Qingzhou Fu became a cultural space to respond to the personal experiences, cultural literacy, and political reality in the mind of Joseon envoys. Yi Qi shrine of Changle County had a long history, and had existed since Qin(秦) Dynasty to Qing(清) Dynasty, repaired and rebuilt several times. Currently, this shrine is called “Shaoxian(昭賢)” after being reconstructed between 2017 and 2018.

Keywords : Joseon envoy, Boyi(伯夷), Shuqi(叔齊), Yi Qi shrine(夷齊廟), Qingzhou Fu(青州府), Wei County(濰縣), Changle County(昌樂縣), Gu Mountain(孤山)

투 고 일 : 2022. 01. 23.
심 사 일 : 2022. 01. 24.～02. 08.
게재확정일 : 2022. 02. 11.

* Associate Professor, Korean Language Department, Weifang University. (Lead Author; wgc5858@naver.com)
** Associate Professor, Korean Language Department, Weifang University. (Co-author; couroi@naver.co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dyh4335@konkuk.ac.kr)

www.kci.go.kr